

NOROO

2012 . SPRING



NOROO

NOROO

2012 . SPRING



始终如一，追求更好的明天

NOROO



늘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
그러나 매일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그 변화의 꽃을 넘려 보는 것이 어떨까요?



작은 목표로 알찬 하루

매일 짧은 목표를 세워 보세요.
버스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기,
꽉 찬 이메일 정리하기 등
간단한 목표 달성이
쌓이면 알찬 하루가 이루어집니다.



다이어리에 차곡차곡

1, 2월에는 계획과 메모로 빼곡했던
다이어리도 3, 4월쯤 되면
뭔가 허전해지지요.
일정 외에도 하루하루의 평가를 남겨 보세요.
나 자신에 대한 칭찬과 격려는
내일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소한 일탈로 유쾌하게

하루가 똑같다고 여겨진다면
작은 일탈에 도전해 보세요.
색다른 점심 메뉴의 시도나
과감한 컬러의 믹스매치 패션은 어떤가요?
나 자신에 대한 칭찬과 격려는
내일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 습관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끔 습관을
비틀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칫솔질도 매일 다른 시작점에서 하면
치아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내일, 새로운 길로 출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Special Theme

늘 지금처럼, 늘 지금보다

06 View

늘, 항상성을 흔들어라!
要常常动摇恒定性!

08 Interview

늘 고객이 중심이다 / (주)노루홀딩스 최광균 고문
始终如一, 以客户为中心
NOROO控股股份有限公司崔光均顾问

12 Blank Story

변화를 향한 습관, 매일의 꾸준한 도전
面向变化的习惯, 每天坚持不懈的挑战

Smile with NOROO

14 Happy Partner

만대까지의 위세로!
만세 (주)노루오토코팅&코리아힐
千秋万代的威势! 万岁! NOROO汽车涂料有限公司&KWC

18 Cheer Us

콜럼버스의 달걀, 노루비케미칼의 수성고탄성항균도료
(주)노루비케미칼 기술진
哥伦布的鸡蛋, NOROO碧化学有限公司的
水性高弹力抗菌涂料 / NOROO碧化学有限公司技术团队

22 Happy Link

Global ERP, Global NOROO
Global ERP TFT
Global ERP, Global NOROO / Global ERP TFT

24 Family Trip

모티브원에서 마법의 주문에 걸리다
(주)노루오토코팅 양홍준 주임 가족
灵感的魔咒 / NOROO汽车涂料有限公司梁洪准主任一家

28 Inspiration from People

무의식의 언어, 색
스에나가 메소드 색채심리연구소 백낙선 소장
无意识的语言, 色
SUENAGA METHOD色彩心理研究所白乐贤所长

32 Special Store

제2의 인생, NOROO와 정직과 끈기로 성공하다
부천 대한페인트상사
第二人生, 用正直和韧劲与
NOROO一起成功富川大韩涂料商社

Sense for NOROO

34 Life

법 없이 살 사람을 위한 법률 안내
专为无“法”生活的人开设的法律咨询

36 Economy

2012년, 주택 양도소득세 무엇이 달라졌나
2012年, 住宅转让所得税有哪些变化?

Clipping from NOROO

38 Focus on NOROO

진보한 기술로 생활을 행복하게
2012 노루페인트 신제품 박람회
采用先进技术, 追求幸福生活
2012年NOROO涂料新品博览会

42 News Briefing

New iPad, New Tablet PC
New iPad, New Tablet PC

46 IT Guide

Behind Cut

숨은 사진으로 보는 편집후기
采编花絮

Special Theme



지금처럼, 늘 지금보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리더 중 한 명인 잭 웰치.

'매일 틀렸다고 생각하면 매일 바꾼다'는 혁신적 사고를 가진 그는
평소에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사실뿐"이라는 말을 신뢰했다고 한다.
이는 21세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석가 역시 열반에 드는 순간,
"모든 것은 변한다. 자신을 등불삼고 진리를 등불삼아
오로지 자신을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여 열심히 정진하라" 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만족스러운 현재에 대하여 '늘 지금과 같이'란 희망을 품고 있다면
미래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변화의 습관화는 '늘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줄 것이다.

始终如一，追求更好的明天

世界著名的商务领导者杰克·韦尔奇认为：“每天认识到错误，每天都会有变化”。因此，他坚定地说：“万物都在变，不变的就是这个事实”。早在释迦涅槃的瞬间，他也曾说过“万物皆变，把自己当作灯，把真理当作灯，依己依法，潜心修炼”。所以如果你满足于现状，希望保持“像现在一样”，要做好应对未来变化的准备。当我们习惯了变化，就能创造“比现在更好”的明天。



06 View 늘, 항상성을 훔들어라!

08 Interview 늘 그랬듯이, 늘 고객이 중심이다 (주)노루홀딩스 최광균 고문

12 Blank Story 변화를 향한 습관, 매일의 꾸준한 도전

느 항상성을 흔들어라!

자동정상화장치(自動正常化裝置)라고도 하는 항상성(Homeostasis, 恒常性)은 'Same(homeo)'과 'to Stand or to Stay(stasis)'의 합성어로서 외부환경과 생물체내의 변화에 대응하여 순간순간 생물체내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생존을 위한 신체 기제이지만, 심리적으로도 발생되며 사회 곳곳에서도 이러한 항상성을 찾을 수 있다. 생명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이 항상성은 그러나 양면의 날을 지닌 겉으로 써,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는 기업에게도 마찬가지이다.

要常常动摇恒定性!

恒定性(Homeostasis)也被称为自动调节功能，是指为对适应外部环境和生物体内的变化，生物体内环境时刻保持动态平衡的一种稳态。恒定性不仅是机体保障生存的一种机制，它是一把双刃剑，有时反而会威胁生命。对企业而言也是如此。



균형과 도태의 갈림길

항상성은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원래'의 기준은 뇌 속 중추신경에 입력된 인체 시계에 있다. 장기간 반복되어 입력된 인체 시계의 리듬에 맞추어 체내 자율 조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체는 외부 온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땀을 내거나 몸을 움츠려 체온을 35.8도에서 37.2도 내로 유지하려고 한다. 식사 양도 적게 먹다 보면 줄고, 많이 먹다 보면 늘어난다. 머리를 감는 주기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도 항상성 탓이다. 머리 기름도 그 주기에 따라 생성되기 때문이다. 운동 역시 일정하게 하다 보면 신체가 운동량과 운동 패턴에 적응하여 칼로리 소모와 운동 효과가 떨어지곤 한다. 먹는 양이 줄거나 운동 양이 변해도 일정 체중을 유지하려는 항상성 때문이다. 지방이 분해되거나 빠져나가면 인체는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항상성이 높아져서 체내 지방이 부족하다는 신체 신호에 반응하여 음식을 배불리 먹고 싶은 충동을 유발한다. 결국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이 항상성을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 신체 신호 자체를 교란시키는 작전도 필요하다. 일정한 리듬으로 고착된 인체 시계의 흐름을 깨야 한다는 소리다. 뇌가 인식하는 체중을 자꾸 흔들고 속여서 항상성을 없애야 한다.

이는 발전과 성공을 지향하는 기업에도 중요한 지침이 된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기업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기업을 구성하는 환경과 조건이 오랜 시간 변하지 않고 굳어져 있을 경우, 그 상태를 깨뜨리고 변화하기란 쉽지 않다. 그 상태가 안정적일 경우뿐만 아니라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어느 상태이건 오래 지속되어온 만큼의 강한 항상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항상성은 균형 유지의 순기능이 아닌, 점진적 도태의 역기능을 수행한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조직행동과 인적자원 관리 분야 교수인 로버트 퀸(Robert E. Quinn)은 저서 『DEEP CHANGE or SLOW DEATH』에서 근원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회피한다면 그 대가는 점진적 '죽음'이라고 얘기한다.

생존을 위한 진보적 항상성

그러므로 기업은 외부적으로는 기업의 항상성을 위해, 내부적인 항상성을 흔들고 깨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를 딛습하는 항상성의 역기능을 없애야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기업을 지속시키는 항상성의 순기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펴낸 『복잡계 개론』에서 저자 윤영수는 기업의 - 외부적- 항상성 유지를 위해 기업 생태계의 복잡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기업의 조직이나 기업이 속한 생태계의 복잡성, 즉 유연성, 다양성, 복합성 등이 낮다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려워지며 기존의 위치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업 시스템이 열려 있어야 하며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대칭성을 파괴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또한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켜야 하고 시스템과 구성요소 간의 공진화(共進化, 여러 개의 종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진화해 가는 일)를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들의 행동 규칙이 명확해야 적응력이 높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며 외부의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나 조직은 모두 성공 공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과거에 큰 성공을 가져다 준 공식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외부의 환경 변화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어느 날엔가는 그 성공 공식이 더 이상 과거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미래를 내다보고 변화를 예측하여 미리 대응하는 것은 가장 뛰어난 전략이다. 하지만 이것이 힘들다면 변화한 환경에 시시각각 적응해 낼 수 있는 '순기능의 항상성'을 키우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어제로의 항상성'이 아닌, '미래로의 항상성'을 위해, NOROO 역시 오늘의 항상을 끊임없이 흔들어야 할 것이다.

均衡和淘汰的十字路口

恒定性意味着“回到原来的状态”。 “原来”的标准在于被大脑中枢神经所识别的生物钟，人体就是按照长期反复认知的生物钟的节奏，实现体内自律调节的。比如，人体根据外部温度的高低出汗或蜷缩身体，都是为了把体温保持在35.8度至37.2度之间。吃饭吃得少，饭量就逐渐变少，而吃饭吃得多，饭量则逐渐变多。洗头发的周期人人不同，其原因就在于恒定性——因为头发的油分也按照洗头发的周期而产生。按时锻炼身体，身体适应其运动量和运动模式，结果导致消耗的热量和运动的效果下降，这都是跟恒定性相关的。饭量变少或运动量发生变化的结果，脂肪被分解或消耗后，要回到原状的人体恒定性增强，身体发出体内脂肪不足的信号，因此引发人体想吃东西的欲望。总而言之，减肥要成功，不仅要有克服这一恒定性的强烈意志和努力，也需要有搅乱身体信号的技巧。换言之，要打破节奏固定的生物钟就要不断搅乱大脑认知的体重，消除恒定性。

对面向发展和成功的企业来说，“消除恒定性”是个很重要的方法。在激烈的社会竞争中，企业为了生存而不断追求变化。但是不管状态是否稳定，若组成企业的环境和条件常年不变，打破其状态实现变化并非易事。无论是何种状态，保持时间越长，恒定性就越强。这时，恒定性发挥的并不是保持均衡的积极功能，而是导致淘汰的消极功能。美国密歇根大学经营管理学院组织行为与人力资源管理领域教授罗伯特·昆(Robert E. Quinn)在自己著作《DEEP CHANGE or SLOW DEATH》中表示，未能认知需要根本性变化的状况或对其视而不见，其代价便是渐渐“死亡”。

为生存而进化的恒定性

企业要发展就要打破内部恒定性。即，企业摆脱拒绝变化，维持原状的恒定性消极功能，才能提高对外部环境的适应能力，发挥让企业存续的恒定性积极功能。三星经济研究所发刊的《复杂系统概论》作者Yoon Yeong-su表示，为保持企业的-外部-恒定性，必须提升企业生态系统的复杂性。企业组织或企业所属的生态系统复杂性，即灵活性、多样性、复合性等较弱，很难适应环境的变化，也难以保持现状。作者还表示，为此企业系统应该开放，打破各种组成要素之间的对称性。同时，要增进组成要素之间的相互作用，引导系统和组成要素之间的共进化(多种因素互相影响，相得益彰的现象)。加之，行为者明确行动规则，就能建立适应力强的系统，易于适应外部变化。

个人或组织都具有实现成功的公式。对曾经带来成功的公式越执著，对外部环境的变化就越迟钝。而总有一天，这种公式将不再奏效。最佳战略是展望未来，预测变化，事先应对所处情况。或者是增强实时适应所变化的环境的“恒定性积极功能”。为了“面向未来的恒定性”，而不是“安于过去的恒定性”，NOROO也要不断动摇今天的恒定性。



늘 그랬듯이, 늘 고객이 중심이다

“NOROO에게 ‘늘’이란 단어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지요. 그것은 무엇보다 ‘고객중심’일 겁니다.” 최광균 고문은 보기 좋은 필체가 가득 담긴 수첩을 앞에 두고 곧바로 인터뷰 주제에 돌입했다. 마치 피아노 악보를 펼치자마자 건반을 두드리는 피아니스트처럼, 땅!하고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물 속에 뛰어드는 수영선수처럼 목표를 향해 직진하는 대답이었다.

始终如一，以客户为中心

恒定性(Homeostasis)也被称为自动调节功能，是指为对适应外部环境和生物体内的变化，生物体内环境时刻保持动态平衡的一种稳态。恒定性不仅是机体保障生存的一种机制，它是一把双刃剑，有时反而会威胁生命。对企业而言也是如此。



최광균 고문 (주)노루홀딩스

NOROO控股股份有限公司 崔光均顾问

사람, 기술, 고객

(주)최광균 노루홀딩스 부회장은 지난해 12월로 30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고문의 자리에서 NOROO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고 있다. 그러한 그에게 ‘늘’이란 어떤 의미일까.

“요새의 화두는 새로움, 변화, 이노베이션, 스피드, 융합 등등 역동적인 것들이지요. 그 속에서 ‘늘’이란 단어는 정체를 떠올리게 하니 부정적으로 생각되곤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관이 그것입니다. 제가 입사한 이래 30년 동안 대한잉크페인트에서 대한페인트잉크로, 그리고 다시 DPI로, NOROO로, 사명(社名)만 해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여러 전문분야로 분사되는 엄청난 변화도 있었지요.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것은 사람을 중시하고, 기술을 중시하고, 고객을 중시하는 NOROO의 정신입니다. 제조·판매 회사인 NOROO에게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고객은 생존의 전제조건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혹여 기업의 패러다임이나 경영 전략이 바뀐다 해도 NOROO는 언제나 고객을 중심에 두고 끊임없이 감사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그는 고객중심을 ‘사고(思考)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체득(體得)’하여 습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객중심이라는 말을 많은 회사들이 외치다 보니, 너무 당연해서 추상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머리 속에는 있지만 몸에 배어 있지 않아서 실효성을 낳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가도 흔히 ‘고객을 소중히 모십니다’라는 글귀를 볼 수 있지만 심드렁한 인사나 물컵을 아무렇게나 내려놓는 손짓은 그 글귀와 거리가 멀지요. 몸에 습관을 들인다면 의도와 언어, 행동이 그렇게 분리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는 습관이 교육의 결과라고 말한다. 어린아이가 기저귀를 떼기까지, 수저를 쥐고 밥을 먹기까지 수없이 많은 반복 훈련을 거치는 것처럼 고객을 향한 마음 씀씀이와 행동거지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객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간혹 ‘How are you?’가 아니라 ‘How am I?’라고 묻는다지요. 자신이 요새 어떻게 보이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보는 게 정확하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도 고객에게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까?’, ‘혹시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을 하며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계속 자극을 받아야 늘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崔顾问强调，习惯是训练的结果。就像婴儿需要经过无数此反复的训练，才能摆脱尿片，才能自己拿勺子吃饭一样，心向客户也是需要训练的。“同时，应该重视客户反馈的信息。心理学家说过有时候我们要问的不是‘How are you?’而是‘How am I?’，就是自我审视，因为别人眼中的自己才是最真实的。企业也一样，应该多问问客户‘我们做得好吗?’、

‘我们有哪些不足?’，了解客户的反应。只有持续受到刺激，才会常常有所改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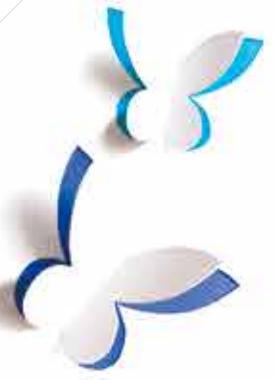
人、技术、客户

去年12月，NOROO控股股份有限公司副会长崔光均先生正式退休，结束了在NOROO长达30年的工作生涯。如今，以顾问的身份，回顾过去、展望未来。对于他而言，“常常”意味着什么呢？

“最近的热门话题就是求新、求变、改革、速度、融合等富有活力的词汇，而‘常常’这个词总让人联想到停滞，有点儿不积极的意思。但是，有些东西是不应该改变的，那就是企业的价值观。我在公司这30年，公司的名称多次变更，从大韩油墨涂料到大韩涂料油墨，然后又改为DPI、NOROO；公司的业务结构也按照专业领域划分成几部分，发生了巨大的变化。但唯一不变的就是以人为本、重视技术、重视客户的NOROO精神。作为集生产和销售于一体的涂料公司，客户就是NOROO生存的前提条件。即使企业的模式和经营战略发生改变，NOROO始终都应以客户为中心，永远感谢并尊重他们。”

他还强调“以客户为中心”并不只是“思考”，而是要付诸“行动”，形成习惯。“有很多公司提出了‘以客户为中心’的口号，但很多是抽象的，这样口号只停留在脑海里，并没有渗透到体内，当然就没有实际的效果。比如，去餐厅吃饭的时候，我们经常能看到‘竭诚为您服务’这句话，但实际上很多服务员都是非常不情愿的向客人打招呼或者随便把茶杯丢在桌子上。我想说的是，如果真养成了习惯，所想、所说和所做的就会保持一致。”

崔顾问强调，习惯是训练的结果。就像婴儿需要经过无数此反复的训练，才能摆脱尿片，才能自己拿勺子吃饭一样，心向客户也是需要训练的。“同时，应该重视客户反馈的信息。心理学家说过有时候我们要问的不是‘How are you?’而是‘How am I?’，就是自我审视，因为别人眼中的自己才是最真实的。企业也一样，应该多问问客户‘我们做得好吗?’、



습관이 변화를 만든다

습관이 교육의 산물이라는 최광균 고문의 말에 따르면, 그에게는 몇 가지 교육의 산물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운동이다. 그는 일주일에 3일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운동하기를 십 년 넘게 해 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해외출장 때도 운동화를 가져가서 호텔 헬스장에서 운동하거나 근처를 조깅하곤 한다. 며칠 전 1박 2일의 부산 출장을 갔을 때도 새벽 다섯 시 반에 일어나 모래사장에서 한 시간을 운동했다. “운동화가 서류가방에 들어가지 않으니 짧은 출장에도 남들보다 큰 가방이 필요하게 되었지요. 하하하……”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운 헬스장 출입을 그가 십 년 가까이 하게 된 것은 명확한 목표 하에 몸에 배도록 습관을 들였기 때문이다. “퇴임을 한 후에도 새벽 다섯 시 쯤 되면 눈이 떠집니다. 늦잠을 자도 되는데 말입니다. 좀 더 여유로워지고 느린 템포로 삶을 바꾸려 하는데 쉽지 않네요. 이것 역시 습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운동 역시 처음에는 가기 싫을 때도 있었고 평계를 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몸에 배고 나니 그 습관을 거스르는 것이 더 어렵더군요.” 최광균 고문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표 설정과 끊임없는 목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야 꾸준히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는 킵(Keep) 시장도 있고, 뉴(New) 시장도 있습니다. 킵 시장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뉴 시장을 개발하고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목표를 항상 인식하며 도전의 마음과 자세를 늘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습관引起变化

崔光均顾问说，习惯是训练的产物，其中最具代表性的就是运动。他每周坚持运动3天，每次1~1.5小时，数十年如一日。去国外出差的时候，他也会带上运动鞋，在酒店的健身中心运动或者去附近跑步。几天前，去釜山出差，他也是凌晨5点半就起床，在沙滩上运动了1小时。“因为运动鞋没办法塞进小的公文包内，因此短期出差时，我的行李箱总是比别人的大，哈哈哈……”

去健身中心运动常常是“三分钟热度”，但是崔光均顾问却坚持十年如一日，养成了健身的良好习惯。“退休后，每天早上5点半左右就会自然醒来。其实完全可以睡懒觉，但是已经养成习惯了，现在想过得自在点，悠闲点还真不是件容易的事。刚开始运动的时候，确实也不太愿意去，也想过找借口逃避，但是当身体慢慢习惯之后，想要改变这种习惯也很难。”崔光均顾问认为要养成习惯，必须设定准确的目标并且坚持不懈地朝目标努力。只有坚持不懈地努力，梦想才会成真。“市场分为固有(keep)市场和新(New)市场。维持固有市场的同时，也要开发新市场，为此企业应该明确目标，时刻准备挑战。



최광균 고문이 지난 사진 속
NOROO 역사



NOROO
Quarterly Magazine

겸손, 사회생활을 위한 항상성

최광균 고문의 버킷 리스트 중에는 안나푸르나 등반이 있다. “안나푸르나를 올라갈 때는 일정 높이를 올라가면 조금 내려와서 쉬고, 또 다시 올라갔다가 약간 내려와서 쉬고… 이러한 흐름으로 등반해야 한다고 합니다. 쉼 없이 올라가면 고산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는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후배 직장인을 위해 ‘사회 생활 속에서 늘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조언해 달라고 하자 들려준 이야기였다. “경쟁사회 속에서는 항상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덕목은 능력보다 지혜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겸손’의 지혜가 중요하지요. 친구, 동료, 상사에게, 특히 고객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최광균 고문은 안나푸르나의 등정(登頂)이 아닌, 등반(登攀)에 충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모든 과정에 의미를 두는 자에게 ‘꼭대기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등반의 끝이 아닌 하나의 지점일 뿐.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기 마련인 사회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동일하게 포용하는 그의 조언은 자칫 잊혀질 수 있는 겸손의 미덕에 빛을 비추고 나직한 울림을 전한다.

谦虚——社会生活所必需的恒性

崔光均顾问希望在有生之年能够攀登安纳普尔纳峰。

“安纳普尔纳峰到达一定高度时，要往下走一段，稍作休息后再向上攀登，然后再往下走一段休息一下……必须以这种循序渐进的方式攀登，否则容易发生高原反应。”崔顾问说社会生活也是如此。作为前辈，他想告诫后辈们“社会生活中应该常常保持良好的心态”。“竞争社会中，常常强调能力，但是比能力更重要的是智慧，其中，‘谦虚’的智慧是最重要的。对朋友、同事、上司，特别是客户常常要怀有一颗感恩的心，保持谦虚的心态。”安纳普尔纳峰对崔光均顾问来说攀登的意义高于登顶的意义。对于重视过程的人，所谓的“山顶”并不存在，因为那并非攀登的终点，只不过是中途的一个驿站。在有起有伏的社会生活中，崔顾问告诫我们，人时常容易浮躁，我们应该积极弘扬谦虚的美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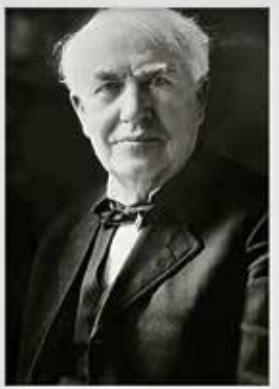


습관이란 여러 번 되풀이함으로써

저절로 익고 굳어진 행동을 뜻한다.

변화를 향한 습관,

매일의 꾸준한 도전



도전의 메모

토마스 에디슨

Thomas Alva Edison, 1847 ~ 1931

“성공하는 이는 실패하는 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습관이 있다”고 토마스 에디슨은 말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성공하는 습관의 대부분은 ‘(나도) 하면 되지!’라는 것을 실제로 ‘해 나가는 데’ 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끈기 있게 해 나가는 어려운 것, 토마스 에디슨의 경우 실패 노트를 꾸준히 작성해 간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999번으로도 잘 하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했던 토마스 에디슨이기에 999번의 실패 경험을 끊임없는 도전의 기록으로 남겨 1번의 성공에 보탠 것이다. 수시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적고 갖가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그는 항상 작은 수첩을 지니고 다녔으며 그와 직원들은 페이지 수가 200~250 페이지에 달하는 공책을 평생 2,500권 이상 사용했다고 한다.

읽고 또 읽고

세종대왕

世宗大王, 1397 ~ 1450

『세종실록』에 “읽기는 다 읽었으나, 또 읽고 싶다”는 글을 남긴 세종대왕은 역사 속에서도 손꼽히는 독서가다. 특히 그의 독서 습관은 한 가지 책을 백 번 읽고, 백 번 쓰는 ‘백독백습(百讀百習)’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한 독서법 덕에 그는 조선의 27대 왕 중에서 가장 짧은 왕세자 교육을 받았지만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다. 같은 글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그의 습관은 한 주제에 대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묻는 토론으로 이어져 그때까지 형식적이었던 경연(經筵)을 토론의 장으로 만들었다. 기록에 따르면 태조 때는 23회, 정종 때는 36회, 태종 때는 80회였던 경연이 세종에 와서는 무려 1,898회까지 열렸다고 한다. 이러한 깊은 탐구와 넓은 탐색의 습관 덕에 훈민정음과 죽우기 등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유산이 남겨질 수 있었다.

마음을 움직이는 말버릇

프랭클린 루즈벨트

Franklin Roosevelt, 1882 ~ 1945

‘말버릇은 그 사람의 인격을, 소비습관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몸은 그 사람의 생활습관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있다. 바로 그 ‘말’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였다.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시기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대국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공황 극복을 위한 정책에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고, 지지를 얻어내었으며 정책의 성공으로 이끌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버릇은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3분 안에 세 번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버릇으로 그는 처음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좀 더 쉽게 외우고 친밀감을 이끌어내었다. 그의 포용력과 친화력은 사소한 버릇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 다리로 글 쓰기

어니스트 헤밍웨이

Ernest Hemingway, 1899 ~ 1961

‘누구를 위하여 좋은 올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로 풀리처 상과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 그는 간결하고도 힘이 있는 문장으로 문명의 세계와 기록한 현실을 표현하며 그 속에서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전달한 20세기의 대표적 작가이다. 그가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던 일은 글을 쓰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서, 그것도 한 발로 선 채 글을 쓰는 것은 그의 독특한 습관이었다. ‘긴장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최대한 긴박하게 생각을 표현해 내기 위해서’ 이러한 습관을 들었다는 헤밍웨이. 대작가의 청호에 만족하지 않고 늘 스스로를 경계하는 습관이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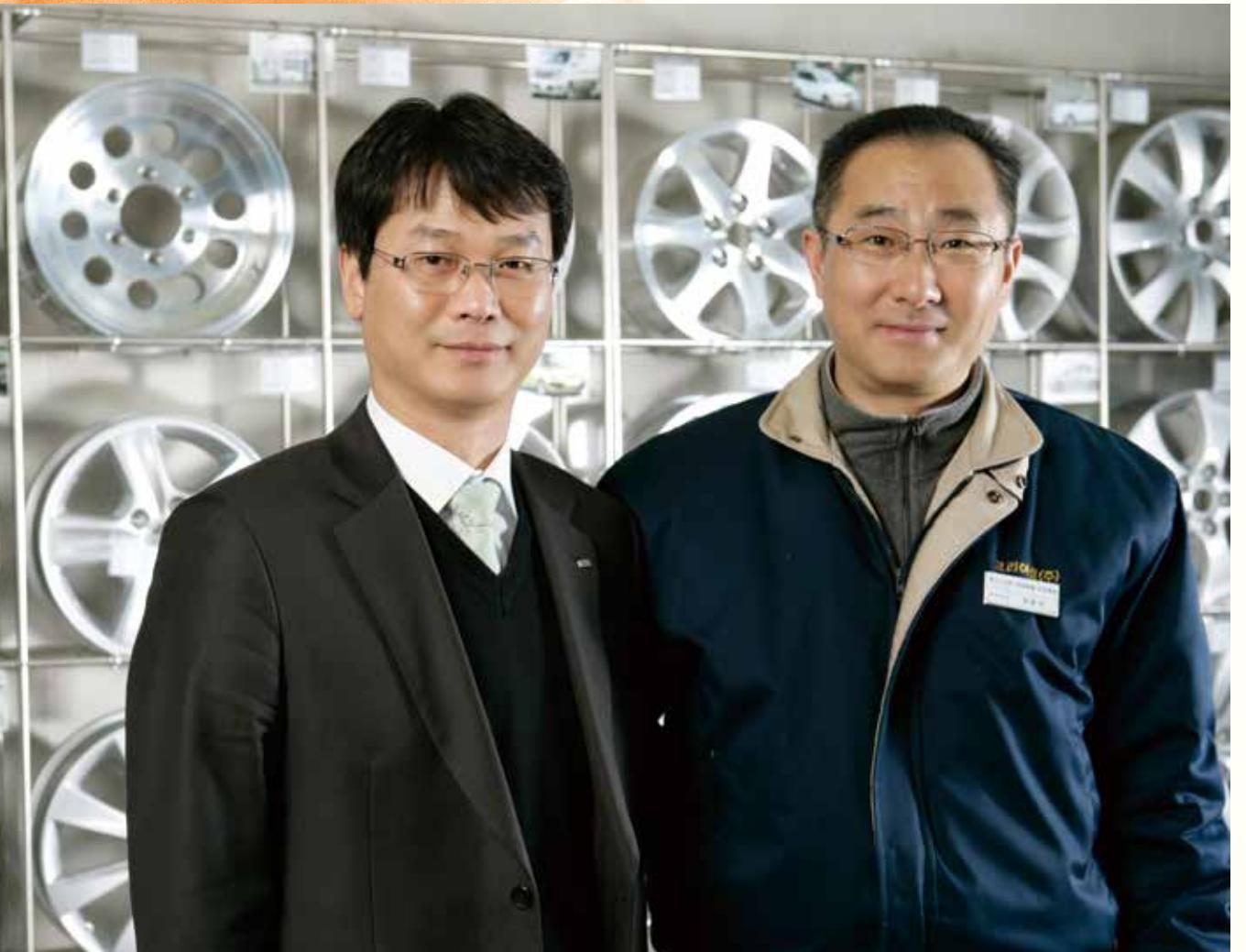
만대까지의 위세로! 만세(萬歲), (주)노루오토코팅 & 코리아휠

부드러운 능선이 아름다운 충남 보령, 그곳의 관청단지는 산업단지라고 생각지 못할 만큼 고즈넉한 풍광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공장의 문을 열자 작업의 열기가 느껴졌다. 총총이 쌓인 거대한 휠들과 방금 도장을 끝내고 줄줄 이 움직이는 휠의 대열에 시선은 압도되었다. 이곳은 세계 10대 휠 생산 기업에 꼽히는 코리아휠이다.

千秋万代的威势!
万岁!

NOROO汽车涂料有限公司&大韩车轮有限公司

延绵的山脉，美丽的风景，这里就是风景秀丽的忠南保宁。宽广园区内景色宜人，让人很难相信这里是一个工业园区。但是推开工厂的大门便是一层层整齐堆放着的巨型轮胎和一排排刚刚涂装好的轮胎，映入我们眼帘的是一派繁忙的工作景象，这里就是世界十强轮胎生产企业之一的大韩车轮有限公司(KOREA WHEEL CORPORATION, 以下简称KWC)。



互信、互补、互生

“听说您是从NOROO过来的？我们这里也没什么了不起的，真不知道该给您介绍点什么。”见到记者，KWC的郑文植专务谦虚地说道。KWC是一家年销售额达1800亿韩元的实力雄厚的国际化制造公司，是世界汽车轮胎生产十强企业。作为NOROO汽车涂料有限公司的大客户，KWC每月购货量超过1亿韩元。尽管我们来自“乙方”，但郑专务待我们如贵宾一般。

“与NOROO结缘已经30年了，撇开甲乙方的关系不说，我们是谋求共同发展的伙伴”，因此为了维持平等的伙伴关系，多年来KWC一直秉承不接受款待的原则。“自上世纪80年代，在九老区生产的时候开始，我们就一直使用NOROO的产品，生产的轮胎大部分用的都是NOROO的涂料。现在，我们80%以上的產品仍使用的是NOROO汽车涂料有限公司的涂料。因为制造业最重视的就是品质，NOROO一直保持优良的品质，才有了长期合作的结果。另外，共同经历过的困难时期，为现在和未来建立信任关系打下了良好的基础”。郑专务表示互信、互补和互生是NOROO汽车涂料有限公司的伙伴精神。“企业数十年来并非一帆风顺，只有在困难的时期，互相帮助，才能实现共同发展。经济危机过后，我们引入美国资本重振旗鼓，当时NOROO帮了我们不少忙。如果彼此之间没有信任，我们是没有办法走到今天的。”听了郑文植专务的一番话，一旁的NOROO汽车涂料的金大垣部长不好意思地笑了。

상호신뢰, 상호보완, 상호희생

“NOROO에서 오셨다고요. 저희가 뭐 대단하게 보여드릴 것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겸손한 인사로 정중하게 기자를 맞이한 이는 코리아휠의 전무이사, 정문식 씨다. 코리아휠은 연간 매출액이 1800억 원 가량인 탄탄한 제조회사로, 자동차 휠 생산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드는 글로벌 기업이다. (주)노루오토코팅으로서는 매달 1억 원 이상의 물량을 구매해 가는 큰 고객인 셈이다. 그러나 정문식 전무이사는 ‘올’이랄 수 있는 손님을 귀빈으로 대접하며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 “NOROO와의 인연이 벌써 30년입니다. 갑과 을을 떠나 서로 상생하는 동반자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코리아휠은 절대로 접대를 받지 말라는 내부원칙이 있다고 한다. 동등한 파트너쉽을 위해 서다. “1980년대 구로에서 생산하던 시기부터 NOROO의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들어내는 휠의 대부분에 NOROO의 도료를 썼지요. 현재도 저희 제품의 80% 이상에 노루오토코팅의 도료가 들어갑니다. 그 이유요?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품질인데, 품질에 대한 신뢰를 끊적이 없으니 당연하지요. 그리고 어려운 순간을 함께 이겨내 준 역사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신뢰를 넣는 듯합니다.” 정문식 전무이사는 상호신뢰, 상호보완, 상호희생, 이 세 가지를 (주)노루오토코팅과의 동반자적 정신으로 꼽았다. “기업 역사가 수십 년이니만큼 쉬운 날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어 함께 성장할 수 있었지요. IMF 때에도 큰 위기 끝에 미국 자본을 도입해 다시 사업을 재개했는데, NOROO에서 손실을 감수해 주고 거래를 재개하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문식 전무이사의 말에 자리를 함께한 (주)노루오토코팅의 김대원 부장 역시 쑥스러우면서도 기분 좋은 공감의 웃음을 나누었다.





갈림길, 하나의 선택

IMF가 어려움의 끝은 아니었다. 2009년도, 미국 리먼 쇼크의 여파가 국내에 힘겨운 상황을 만들었을 때, 코리아휠은 보령으로의 공장 이전을 앞두고 있었다. “이 힘든 시기에 공장 이전이 올바른 선택인가 고민을 많이 했지요. 그러나 결국 공장 이전을 선택했고, 다행히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판매가 늘면서 저희 역시 매출은 늘었지만 고생은 많았습니다.” 정문식 전무이사의 표현에 따르면 공장 설비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서 옮겨 놓으면 안착되어가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생산량은 늘려야 해서 혼란이 많이 왔다고 한다. 지난 2008년에 공장을 이전했던 (주)노루오토코팅 역시 같은 경험을 해야 했다. “저희도 그때 글로벌 경제 위기도 오고 해서 참 어려웠지요. 하지만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늘리게 되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김대원 부장의 말에 정문식 전무이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을 표했다. “이전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생산량을 늘려 수요에 부응할 수 있었고 거래처를 늘리는 등 목표치도 높아졌으니까요.” 위기의 순간은 언제나 갈림길이다. 이 두 회사가 이제껏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돌아서느냐 나아가느냐 중 ‘돌파’를 선택하는 의지의 공통점 때문이 아닐까.

岔路口，共同的选择

除了经济危机，2009年，美国雷曼兄弟引发的经济风暴给韩国也带来了很大的冲击，当时KWC正打算把工厂迁至保宁。“那么困难的时期，该不该搬迁，我们苦恼了很久，但最终还是选择了搬迁。幸好随着起亚和现代汽车销售量的增加，我们的销售也大幅增加，但当时还是很辛苦的。”郑专务说，工厂的设备就像活着的生物一样，移动后需要经过一段时间才能进入稳定状态。所以那个时候，产量突然要提高，让我们手足无措。2008年，NOROO汽车涂料有限公司搬迁的时候也经历了同样的困境。金大洹部长说：“那时候的经济危机也让我们非常难熬。但产量的稳步增加为良好的发展奠定了基础。”郑文植专务在一旁点头表示赞同。“过去虽然很困难，但最终我们能够满足渐渐增加的产量需求，交易的企业也越来越多。”危机时刻到处都是岔路口，这两家企业能够共同发展至今的理由之一就是他们有一个共同点——在前进和后退中，都选择了前进去“突破”。



만세(萬歲)의 보령

지난해 말, (주)노루오토코팅은 한국무역협회로부터 3천만 불 수출탑을 받았다. 여기에는 코리아휠로의 매출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코리아휠은 중국의 천진, 덕주에 공장을 세워 스틸 휠과 알루미늄 휠을 생산 중이다. 중국에서의 매출 규모만 약 650억 원. (주)노루오토코팅은 이곳에도 도료를 수출하고 있다.

“생산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서 2006년에 중국의 알루미늄 공장을 인수하고 알루미늄 휠 생산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나 스틸 휠은 우리 회사가 한국 내에서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어 이곳 보령에 새로이 공장을 마련한 것이지요.” 정문식 전무이사는 안정화가 마무리된 2011년이 보령에서의 원년이라면 2012년은 코리아휠에게 제2의 도약이 될 해라고 말한다.

안산에서 보령으로 거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노루오토코팅의 기술팀과 영업팀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꼭 들른다고 한다. “NOROO는 기술 영업을 잘해 주십니다.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력까지 보태주시지요. NOROO에 더 바랄 것이 있느냐고요? 지금처럼만 함께한다면 뭐가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김대원 부장과 코리아휠의 김일호 과장, 정문식 전무이사는 단단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휠 앞에서 한마음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보령의 슬로건은 ‘만세’. 만세보령이라 한다. 만세는 환호의 소리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삶을 뜻하기도 한다. 코리아휠과 (주)노루오토코팅의 신뢰와 발전의 역사 또한 보령에서 만세(萬歲)를 이루어 갈 것이다.

万岁的保宁

去年底，NOROO汽车涂料有限公司荣获了韩国贸易协会颁发的3千万美元出口塔奖杯，其中包括向KWC销售的业绩。KWC已经在中国天津和德州建立了工厂，生产不锈钢轮胎和铝制轮胎，仅中国的销售额就达到了约650亿韩元。NOROO汽车涂料有限公司也向当地出口涂料。

“产量提高了，但还很有限。2006年收购了中国的轮胎工厂，开始全面生产铝制轮胎。而不锈钢轮胎则在韩国保宁建造了工厂”郑文植专务表示，2011年是公司在保宁的开局之年，2012年将成为KWC第二次飞跃的关键一年。

尽管两家公司的距离变远了，但是NOROO汽车涂料有限公司的技术组和销售组仍然坚持每周来这里一两次。“NOROO在技术营业方面非常周到，他们不仅是卖产品，技术支持也很到位。如果说对NOROO还有什么要求？那就是希望他们能一直保持下去，其他就别无所求了”。金大洹部长和KWC的金日镐、郑文植专务看着眼前一排排闪闪发光的轮胎，脸上露出了幸福的笑容。保宁的标语是“万岁”，“万岁”既是欢呼的口号，也代表着永远生存下去。KWC和NOROO汽车涂料有限公司的信任和发展将随保宁一起永远延续下去。



**(주)노루비케미칼
기술진**

NOROO碧化学有限公司技术团队

콜럼버스의 달걀, 노루비케미칼의 수성고탄성항균도료

작년 겨울, (주)노루비케미칼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호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알렸듯이, NOROO 그룹 최초이자 도료업계 최초로 NET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이었다. 국가로부터 새롭고도 완벽하다고 인정받은 기술에 대한 궁금증과 기쁜 소식을 뉴스 브리핑의 지면에만 실기에는 아쉬운 마음에 직접 (주)노루비케미칼을 찾아가 보았다. 그날도 (주)노루비케미칼의 기술진은 각종 회의와 실험으로 바쁜 모습이었다.

哥伦布的鸡蛋 NOROO碧化学有限公司的 水性高弹力抗菌涂料

去年冬天, NOROO碧化学有限公司传来了好消息。正如上一期新闻简报所提到的, 该公司是NOROO集团第一个也是涂料界最早获得NET认证的企业。那么, 被国家授予最新、最完美的技术到底是什么呢? 怀着好奇的心情, 我们走访了NOROO碧化学有限公司。走访当天, 这里的技术团队正忙于各种会议和实验。



NET 인증으로의 도전

NET란 'New Excellent Technology'의 약자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새로운 기술을 의미한다. 새로이 개발되는 기술들 중 산업 및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될 기술을 국가가 가려내고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보급을 촉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때문에 인증 절차가 까다롭고 시일도 오래 걸려 도전 자체도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도료 업계 최초로 (주)노루비케미칼에서 '수성고탄성항균도료'를 통해 인증서를 받은 것이다. 그 인증서의 주인공들, (주)노루비케미칼의 기술진을 만나 그 시작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았다.

"기아자동차의 선행디자인팀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우면서 탄성이 있는 도료를 내장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달라는 것이었지요. 고급 자동차의 경우, 내장을 가죽으로 마감하곤 하지만, 모든 차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베인트로 마감을 하더라도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일 수는 없을까, 스크래치에 강하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술그룹장 백승욱 부장의 설명이다.

"노루비케미칼에는 외장도료기술팀, 내장도료기술팀, 울산기술팀, 기술관리팀 그리고 사장님 직속의 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통상 도료 개발의 컨셉트가 잡히면 우리 원료로 가능한가 살펴보고 수지 개발 요청을 하는데, 이 수지 개발 및 기초 실험을 기술연구소에서 실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도료를 배합하고 실험하면서 생산 라인에 연결하는 응용 및 적용의 시험은 내장도료기술팀에서 했지요."

向NET认证发起挑战

NET是 "New Excellent Technology" 的缩写, 指具有很强的经济效果, 可以提高国家竞争力的新技术, 其目的在于国家从新开发的技术中选择发掘能够成为产业和国家发展支柱的技术, 客观地对其优越性进行评估, 并在国内外推广普及。因此评选的过程非常严格, 时间也很长, 挑战起来不容易。即便如此, NOROO碧化学有限公司凭借 "水性高弹力抗菌涂料" 成为业界首家获得此项荣誉的企业。我们有幸见到了荣获这项殊荣的主角——NOROO碧化学有限公司的技术团队, 对他们进行了采访。

技术团队的负责人白承郁部长说: "我们是在收到起亚汽车先行设计组的邀请后开始研发的。他们希望我们开发出有弹性, 能用于内部材料上的高档涂料。虽然一般高档车是用真皮来做内饰, 但并不是所有的车都适用。我们想看看能不能用一般的涂料也做出抗划痕的高档效果, 这也是我们开始研发工作的初衷。"

"NOROO碧化学有限公司设有外部装饰涂料技术组、内部装饰涂料技术组、韩国蔚山技术组、技术管理组和社长直属的技术研究所。通常, 确定涂料开发的方向后, 首先要看看我们现有的原料能不能用, 然后提出树脂开发要求, 树脂开发和基础实验在技术研究所完成。在此基础上进行实验, 研究涂料配方, 然后由内部装饰涂料技术组进行生产线应用和实际实验。"



부딪혀야 번개가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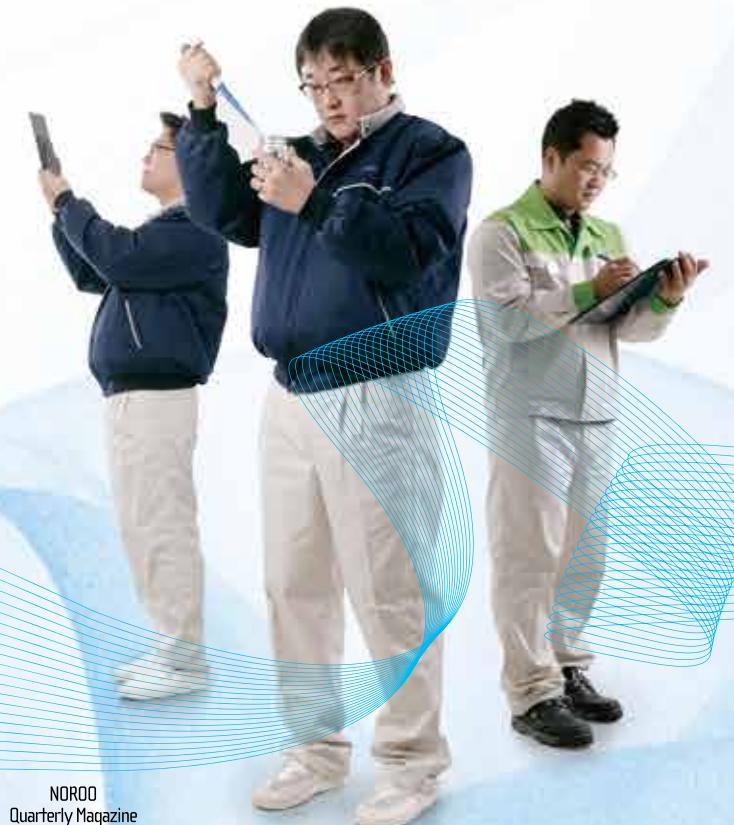
‘말’로 옮기면 두 세 문장으로 완결되지만 실제 개발에 걸린 시간은 약 일 년 반, 낮과 밤 없는 연구진의 분투로 채워졌다. 야근이 잦지 않았나는 기자의 질문에 기술연구소의 안재범 소장이 그때를 떠올리는 듯 대답해 주었다. “볍도 많이 썼었지요. 처음 컨셉트를 잡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개념이 서지 않아서 (주)노루홀딩스 중앙연구소에 가서 탄성 우레탄 기술을 가지고 응용해 볼까 의논해 보기도 하고, 핸드폰 액정 화면의 완충제를 만드는 곳도 가 보았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만들었던, 탄성감이 매우 높은 수지도 있었지만 스크래치를 없애기 위해 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지요. 이 때문에 연구소와 내장도료기술팀이 모여 열심히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그 결과, 안료가 스크래치에 영향을 많이 주니, 상도 도료를 도장하기 전에 칠하는 프라이머에 색을 내는 기능을 부여해 보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백승욱 부장 역시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 발상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포기 상태였다고 한다. ‘스크래치는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 질감을 부여하던 기존 도료의 수준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려는 순간, 갑자기 그 아이디어가 튀어나왔다는 것이다. “절실히 고민하면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두 함께 브레인 스토밍을 한 끝에 그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콜럼버스가 달걀을 괜히 깐 게 아니라 하고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안했을 뿐이죠.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부싯돌이 부딪혀야 불꽃이 튀고, 구름이 부딪혀야 번개가 치는 법이다. 브레인 스토밍(Brain Storming), (주)노루비케미칼의 기술진이 혁신을 위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 난상을 자유로이 쏟아내며 끊임없이 부딪힌 결과, 이 소중한 아이디어가 탄생했다. 그리고 여기에 무기 형균제로 최소 5년까지 항균성이 유지되는 기능까지 부여했다. 아픔과 고난이 있었을 그들의 노고 덕에 NOROO의 기술, 그리고 우리나라 도료 업계의 기술력이 한 걸음 더 진보하였고 한층 더 밝아진 것 아닐까.

碰撞才会有火花

这个技术“说起来容易”，但实际上是研究团队用了大约一年半的时间不分昼夜辛勤劳动的成果。回想起整个研究过程，技术研究所的安宰范所长说：“熬夜是家常便饭，一开始确定概念的时候，有点无从下手，我们曾经想去NOROO集团的中央研究所，把他们的弹性聚氨酯技术直接拿过来试试看；也曾去过制作手机液晶画面缓冲剂的地方考察。我们研究所也有弹性非常强的树脂，但是为了抗划伤，还需要一些其它的东西。最后，经过研究所和内部装饰涂料技术组的冥思苦想和热烈讨论，大家一致认为既然颜料能有效抗划痕，不妨尝试一下给底漆加入颜色，然后再涂面漆。这也是我们突发灵感的瞬间。”白承郁部长至今仍对那个瞬间记忆犹新，因为就在这个想法萌生之前，大家几乎已经绝望了。“正所谓绝处逢生，经过一番头脑风暴，点子终于想出来的时候，突然明白了就像哥伦布立鸡蛋一样，谁都可以做到，只是没有做而已。所以那时候的印象是最深刻的印象。”

打火石互相碰撞才会有火花，云层相互撞击才会有闪电。为了革新，NOROO碧化学有限公司的技术者将自己的意见和建议，甚至是片断的想法拿出来，相互碰撞后才诞生了如此珍贵的想法。不仅如此，他们还利用无机抗菌剂使该技术具有至少5年的抗菌性。正是他们在痛苦和困难面前所付出的辛劳，让NOROO的技术和韩国的涂料技术水平又“更上一层楼”。



다르기에 나누고, 나누어 나아가고

사람의 지문이 모두 서로 다르듯, 한 사람 한 사람의 뇌구조도 서로 같지 않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생각을 나눔으로써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내장도료기술팀의 이용철 과장의 경우,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실험 정신이 강해서 이것 저것 시도해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미해 주임은 그와 달리 신중하게 돌다리를 두드려 보면 확실한 것에 도전하는 태입이죠.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모여 토의를 하고 실험을 거듭하니 그 성과가 더욱 더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백승욱 부장의 평이다. ‘다름’이 부딪힐 때 부서지지 않고 아픔을 이겨내려면 완충재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팀워크, 협업 정신이다. 이미해 주임과 김민기 대리, 홍승표 주임은 인터뷰 내내 서로에게 공을 돌리며 그간의 팀워크를 자랑했다. 라인 적용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주말과 밤을 가리지 않고 거듭하여 테스트하고 도와주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서로의 이름을 빼뜨리지 않고 언급한다. 기술연구소의 주훈관 대리, 오대근 대리도 마찬가지다. 상대에게 즐거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 주어 업무 중 벽에 부딪힐 때마다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팀장들의 업무 조율 덕분에 기술을 완성시키고 복잡하고 방대했던 인증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재범 소장은 NRB 영업팀원들에게도 기대가 크다고 말한다. “인증된 제품을 홍보하고 실제로 매출을 늘리는 역할을 맡고 계시니까요. 특히 김동우 대리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이번 기술은 앞으로 업계의 단독 표준이자 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하니, NOROO인으로서 더더욱 자부심이 느껴진다. “우리가 개발한 도료가 적용된 차가 좋은 평가를 받을 때, 정말 기쁘지요. 이런 기쁨을 느끼게 해 준 우리 팀과 언제까지나 함께하고 싶습니다.” 김민기 대리의 말로 (주)노루비케미칼 기술진 모두의 마음을 대변해 본다.



NOROO BEE Chemical's Technology Team

分享不同，分头前进

就像每个人的指纹都不同一样，每个人的大脑结构也不相同。因此，大家聚在一起，彼此分享各自不同的想法，就能创造出更卓越的技术。

白承郁部长评价说：“内部装饰涂料技术组的李镕喆课长有很多好的想法，实践精神很强，属于什么都想试试的类型。李美惠主任则与他有所不同，属于谨慎型人才，绝不打无把握的仗。这些性格完全不同的人聚在一起，集思广益，使得成果也变得更加丰硕起来”。 “不同”的东西碰撞在一起，若想彼此不受伤又能战胜苦痛，就需要加点缓冲剂，也就是团队合作精神。李美惠主任、金旼起代理和洪承杓主任在接受采访的时候，一直把功劳让给对方，同时对他们的团队精神赞不绝口。生产线的测试需要大家不分昼夜地相互配合进行，取得这么好的成绩，离不开任何一个人的付出。技术研究所的朱训官代理和吴大根代理也是如此，工作中他们互相为对方缓解压力，使工作中所遇到的困难都能迎刃而解。同时，在组长有效的业务分配下，不但完成了技术开发，复杂、庞大的认证工作也顺利完成了。安宰范所长表示对NRB营业组的组员们也有很大的期待。“他们是负责宣传获得认证的产品，提高实际销售额的重要角色，特别是金东佑代理的带头作用。”

据介绍，今后该技术将成为业界的唯一标准，这使得NOROO人为此感到更加骄傲和自豪。“当使用了我们开发的涂料的车受到好评时，真的很开心。希望能和创造这种喜悦的我们的团队一直工作下去。”金旼起代理的话道出了NOROO碧化学有限公司技术团队所有人的心声。



Global ERP, Global NOROO

지난해 6월, NOROO 그룹은 기존의 ERP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Global-ERP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발표하고 Global ERP TFT를 구성,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차 오픈 시기를 두 달 여 앞둔 현재, Global ERP TFT의 사무실은 시스템 완성을 향한 집중의 열기로 가득 차 있다.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NOROO

Global ERP TFT의 사무실을 들여다본 사람은 알 것이다. 50여 명의 임직원들과 그들이 사용하는 50여 대의 노트북만으로도 마치 응대한 공장과도 같은 위압감을 뿐 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NOROO의 각 계열사에서 모인 임직원들과, 시스템 구축 전문기업 벨트원의 직원들은 마치 거미가 촘촘히 거미줄을 자아내듯, 눈과 손을 바삐 움직이고 논의를 거듭하며 NOROO의 거대한 네트워크 망을 짜고 있는 중이다.

“NOROO 그룹이 처음 ERP를 구축한 것은 2002년도였습니다. 페인트 업계에서는 최초로 ERP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었죠.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함께 각 계열사와 해외 사업장을 포괄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체제로 새로이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노루홀딩스 김재형 부장, (주)노루페인트 GLS 사무국 김기도 차장, 벨트원의 총괄 PM 임인수 이사, DIT의 SM 사업부 권길주 부장이 함께한 인터뷰 자리에서 ERP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양선모 임원이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다.

“이제까지 각 계열사가 서로 다른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 업무에 대한 연계성이나 정보 분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면 전 계열사가 쓰는 기준 정보가 표준화됨에 따라 회계, 자금 관리, 원자재 구매, 생산 및 판매 운영 관리 등 업무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화와 최적화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서로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됨에 따라 중복 되는 업무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물론, 의사결정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 갈 수 있지요.” 양선모 임원은 이와 함께, NOROO 그룹의 해외 전략 강화에 따라 늘어가는 해외 브랜치 또한 Global-ERP 시스템 구축에 따라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객과의 접점에서 신속하게 재고 현황, 주문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이다.

새로운 모세혈관, Global-ERP

“새로운 ERP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면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를 단계적, 전략적으로 수립했으며 사용자 교육도 마련할 것입니다. 오픈 후에도 도움 창구를 통해 사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벨트원의 임인수 이사는 오픈 이후의 적응 기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설명을 덧붙였다. 벨트원은 국내 최고의 ERP 전문 컨설팅 기업으로서 2002년의 첫 ERP 구축을 함께 했던 파트너이다. 임인수 이사와 김재형 부장은 “6월 1일 이후에도, 기준에 써왔던 것처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처럼 ‘잘 만들겠다’는 목표와 함께 ‘잘 써야겠다’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할 것이다. 양선모 임원은 ‘급속하게 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은 변화를 주도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며 시스템이 새로운 환경에 맞게 구축됨에 따라 직원들도 실무적 변화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고 나아가서는 시대의 변화에 함께 대응해 갈 것을 기대했다.

2006년 6월, (주)노루홀딩스의 자주회사 체제로 그룹 구조를 개편하면서 NOROO의 브랜드 및 사내 교육 프로그램의 통일화 작업이 이어져 왔다. 기업의 이념을 다시 한번 제고한 NOROO Way에 이어 이번 ERP 시스템 재구축은 업무의 일원화로써 NOROO 그룹 통일화 과정을 완료하는 마지막 절차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6월, ERP라는 새로운 모세혈관을 통해 업무에 임하는 모든 사원은 그룹의 전신(全身)을 생생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 모두가 한 몸임을 다시 한번 자각함으로써 Global-ERP는 업무 효율 향상과 함께 NOROO의 정신적 가치 힘양에도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모티브원에서 마법의 주문에 걸리다

예술인 마을로 잘 알려져 있는 파주의 헤이리. 건물 하나하나가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이라 건축학도들이 찾는 전시장이자, 연인들에게는 아름답고 고즈넉한 산책로와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데이트 장소이며 어린이를 위한 전시관도 많아 가족들도 즐겨 찾는 곳이다. 그러나 그곳의 길과, 전시관, 카페를 오고 가다 보면 무언가 아쉬움이 생긴다. 그 아쉬움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하고 해소해 준 곳이 바로 모티브원이었다.

예술인의 문화 열리다

“와~ 아름다운 한 쌍이십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주)노루오토코팅의 양홍준 주임이 부인 전지나 씨와 모티브원에 들어선 때였다. 길고 흰 수염이 인상적인 모티브원의 주인장 이안수 씨가 얼굴에 힘박웃음을 담으며 그들을 반겼다. 먼저 인사를 나눈 기자에게도 따뜻한 환대의 인사 몇 마디로 마음을 녹여버린 그다. 오늘은 NOROO 사보 촬영을 위해 무수리가 되어 드리겠다고 유쾌하게 웃으며 섬세하게 마음 쓰는 그를 보자, 그간 느꼈던 헤이리에서의 아쉬움이 무엇이었는지 불현듯 알게 되었다. 그것은 ‘삶의 냄새’였다.

예술인 마을이지만 예술인의 작품을 전시장에서 관람할 수 있을 뿐, 예술인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잘 맡아지지 않았다. 닫힌 방문 안에 있어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거주공간이니 그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안수 씨는 게스트하우스 모티브원의 문을 열고 관람객을 길 위의 친구로서 와락 끌어안는다. 양홍준 주임과 전지나 씨는 행운아임에 틀림없다. 헤이리 첫 방문에 이러한 환대를 받을 수 있었으니 말이다.



매일이
여행이다

양홍준 주임과 전지나 씨는 결혼 10개월 차의 신혼부부다. 연애 4년차에 양홍준 씨의 (주)노루오토코팅 입사를 계기로 전격 결혼에 성공했다. “양가 부모님께서 제 입사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좋은 회사에 들어온 덕분에 결혼을 일시천리로 진행시킬 수 있었죠.” 실제로 2011년 3월에 (주)노루오토코팅에 입사한 양홍준 주임은 두 달 뒤 청첩장을 돌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청첩장 돌릴 때 구박 아닌 구박도 좀 받았어요. 선배님들도 계시는데 먼저 간다고… 하하하” 그래도 용기를 낸 덕에 미안을 얻은 그다.

용감한 양홍준 주임과 미안 전지나 씨가 꽉은 결혼의 장점 1호는 ‘훌쩍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이다. “결혼 전에도 친구들과 어울려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좀더 자주, 자유롭게 떠날 수 있으니 좋아요. 토요일 아침이면 간단하게 짐을 꾸려 내키는 곳으로 출발하지요. 정보를 찾아보거나 숙소를 미리 정하지도 않아요. 가서 직접 느끼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행이 체질이라는 이 부부는 오히려 여행지에 가면 싸울 일이 없다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가면 자주 다투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흰 여행 가서 싸운 적이 없어요. 낯선 곳에서 서로의 필요를 더욱 느끼고, 채워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사회인이고 양가의 가족도 쟁겨야 할 일 많아 장기 여행이 어렵다면 아쉬워하는 부부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장기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오늘을 내일로의 여행길로 여긴다면, 여행 중에 항상 서로를 챙기는 그들의 매일은 모이고 엮여 아름다운 장기 여행이 될 것이다.



인생을
위한
주문

여행에 있어서는 모티브원의 주인장 이안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이안수 씨는 25년간 책과 잡지를 만들어 왔으며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많은 나날을 여행으로 채웠다. 그리고 이제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삶의 이야기를 모은다. 모티브원의 서재 ‘library O’에서는 1만 2천 여 권의 책과 첨첩이 쌓인 방명록을 통해 그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방명록 한 페이지에는 서로 다투고 방문한 연인이 남긴 화해의 글도 보였다.

“싸움은 학습의 과정입니다. 부부에게 권장사항이지요. 그러나 화해의 기술을 가진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두 분은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하하” 양홍준 주임, 전지나 씨와 찻잔을 기울이며 이안수 대표는 권장사항을 더했다. “여행을 좋아하신다고요? 완전한 독서는 글쓰기로 마무리되듯이 여행도 기록으로 완성됩니다. 두 분의 여행을 기록하고 책으로 완성시켜 보시길 권합니다.” 이안수 대표의 말은 부부의 긴 인생길을 축복하는 주문처럼 들렸다. 반짝이는 마술봉 끝에서 흘러나온 듯한 주문. 헤이라는 이러한 착시가 가능한 곳이었던 것이다.

모티브원은 TV에 여러 번 출연하였고
세계적 여행백서 「룬리플래닛」에 이어
한국관광공사가 발행한
『한국의 가장 유니크한 숙소』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주인이신 이안수 씨는
한정원 저자의 책
『지식인의 서재』에 소개되기도 했지요.
그 유명세에 비해 더없이 겸손하고 친근한 자세로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 이안수 씨 덕에
그 공간이 더욱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예약 및 문의 <http://www.motif1.co.kr>



무의식의 언어, 색

색채로 송고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던 마크 로스코는 “나에게 색채는 비극, 환희, 피멸 등과 같은 근본적인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스에나가 메소드 색채심리연구소의 백낙선 소장도 색채가 표현해 내는 감정에 주목한다. “색은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색채심리연구소는 그 언어를 해석해 내는 곳이죠.” 백낙선 소장의 색에 대한 설명이다.

스에나가 메소드 색채심리연구소

백낙선 소장

색에 마음이 담기다

사실 백낙선 소장은 색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홍익대학교에서 서양화를 공부하고 캐나다와 미국에서 판화, 필름, 일러스트를 전공한 뒤 작가와 웹 아티스트로 활동해 오면서도 형태와 모티브, 소재와 주제에 집중했을 뿐, 색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런데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에서 상담심리를 배우고 우연한 기회에 일본에서 스에나가 타미오 박사를 만나면서 색채라는 것이 개인의 취향만이 아니라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색이라는 것은 가시광선, 백색광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는 모든 색깔이 다 들어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색 중에도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 색이 달라지곤 합니다. 정치상황, 경제상황 등에 따라 시대를 대변하는 컬러가 있듯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에 어떤 색이 끌렸는가, 혹은 배제하거나 거부하게 되는가. 그러한 컬러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색으로 나의 역사를 알아보는 수업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기억들을 끄집어냅니다. 모든 기억은 색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언어로 풀어내는 보통의 심리 상담보다 더욱 더 정확한 내면의 감정을 끌어내곤 합니다.” 백낙선 소장은 색채 심리 상담을 받았던 한 여성의 예를 들었다. 분홍색에 대한 이유 없는 거부감이 있었던 한 여성은 상담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 여성스러운 분홍색만을 강요했던 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내면 깊숙이 쌓여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 여성은 분홍색 물감을 자유롭게 사용해 봄으로써 거부감을 내려놓고 어머니에 대한 무의식적 불만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예는 셀 수 없이 많다.



스에나가 메소드 색채심리연구소에서는 색을 통해 도출된 감정의 불균형 역시 색으로 치유한다. 물감, 파스텔, 색연필 등 다양한 재료를 써서 혼합하고 배색해 보며 스스로 이해해 가는 것이다. 색으로 이루어지는 상담 활동에 많은 관심이 몰려 상담 자격을 위한 교육 및 라이선스 과정까지 두고 있다.





관계의 배색, 감정의 혼색

“색은 한 가지 색상만 아니라 혼색과 배색, 톤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혼색은 뒤섞인 감정을 의미하고 배색은 사람과의 관계성을 보여주지요. 대비색과 유사배색의 선호도에 따라 대인관계의 선호도도 갈리곤 합니다. 동생이 생겨서 질투가 많아진다든지 하는 감정의 혼란에서는 혼색을 쓰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스에나가 메소드 색채심리연구소에서는 색을 통해 도출된 감정의 불균형 역시 색으로 치유한다. 물감, 파스텔, 색연필 등 다양한 재료를 써서 혼합하고 배색해 보며 스스로 이해해 가는 것이다. 색으로 이루어지는 상담 활동에 많은 관심이 몰려 상담 자격을 위한 교육 및 라이선스 과정까지 두고 있다. 또한 아틀리에를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열어줌과 동시에 마음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활동도 한다. 의미 있는 활동 중 하나에는 ‘세계 어린이 크레용 기금’ 활동도 있다.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크레용을 이용한 워크샵 자리를 마련해 주어 자신들의 힘든 부분을 표출하고 토해내도록 돕는다.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색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객관적으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상목적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백낙선 소장은 설명한다.

그러한 활동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별 고객에게는 컨설팅도 제공한다. “스에나가 타미오 씨의 컬러 컨설팅을 예로 들어볼까요? 일본의 한 양로원에서 대화실, 식당 등 공간의 특색에 따라 어떤 색을 써야 할지에 대해 컨설팅을 의뢰해 왔습니다. 스에나가 쓰는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진행하여 식욕을 돋우는 색은 무엇인지, 대화를 이끌어내는 색은 무엇인지 를 검토했지요. 그 공통의 색을 찾아내고 입구에서부터 목적지까지의 동선을 각각의 색으로 안내한 결과 곳곳의 이용 횟수가 늘고 이용객들의 편의성도 높아졌습니다. 개개인의 방 역시 맞춤형 컬러로 다양하게 하여 생활의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었고요.” 백낙선 소장은 이러한 상담과 컨설팅 활동을 ‘분자적 접근’이라고 말한다.



색의 분모와 분자

“빨강은 감정, 파랑은 이성, 초록은 자연 등 색에서 공통의 사회적 상징을 뽑아내는 것이 ‘분모적 접근’이라면 색채심리 연구는 개인마다 다른 ‘빨강’의 느낌을 찾아내는 분자적 접근을 하지요. 컬러의 적용에는 이 두 가지 접근이 모두 중요합니다.” 공공 디자인이나 기업의 로고 등 사회 일반에서 사용되는 컬러에는 분모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특히나 환경과의 조화 측면에서는 분모의 역할이 중요한데 여기에 컬러 전문가의 컨설팅이 큰 도움을 준다. “요새 아파트들은 건설사의 고유 컬러에 따라 도색하곤 합니다만 주변 환경을 고려한다면 여러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와 같은 전문가가 그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지요. 고유성을 잊지 않으면서도 주변과 조화되도록 톤에 변화를 주거나 포인트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요.”

분자적 접근을 위해서 인테리어 업자들도 이 연구소를 찾는다고 한다. “신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돋는 컬러는 무엇일까 고민된다면 학교 별로 워크샵을 해서 그에 맞는 컬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색이 뭐니?’라고 단순히 묻는 것이 아닙니다. 색이 낳는 다양한 반응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것이죠.”

색이 창출해내는 감정적 파장의 중요성을 아는 백 소장은 풍부한 감성을 위해, 무엇보다 다양한 색을 생활 속에서 골고루 체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미묘한 것처럼 각각의 색은 참으로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에 노루페인트에 기대합니다. 섬세한 색의 차이를 잘 나타내어 주시는 것을요.” 소비자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색감을 충분히 누리고, 발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백낙선 소장의 마음은, NOROO의 마음과 같은 컬러가 아닐까.





제2의 인생, NOROO와 정직과 끈기로 성공하다

부천 대한페인트상사

평균 수명이 늘어난 지금, 흔히 은퇴 후를 제2의 인생이라고들 말한다. 이 인생의 제2막을 위해 대한민국의 많은 가게들이 문을 열고, 또 그 상당수가 문을 닫는다. 그러나 부천 대한페인트상사는 그 어렵다는 은퇴 후 창업을 정직과 끈기로 성공시켰다. 오늘도 분주히 드나드는 손님들로 문이 닫힐 새가 없는 그곳, 부천 대한페인트상사를 찾았다.

365일 열려있는 문

부천에 위치한 대한페인트상사는 1996년 12월 문을 열었다.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황국길 사장은 은퇴 후 지인의 소개로 가게를 인수했다. 직종도, 지역도 바꾼 50 대의 새 출발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인수했을 당시에는 기대했던 것과 달리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쉽지 않았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죠.” 전업주부였던 부인 정옥경 씨도 가게 일에 발벗고 나섰다. “오는 손님들께 열심히 차 대접, 커피 대접하면서 상담했어요. 한 분 한 분 정말 정성껏 도와드렸습니다. 도장공뿐만 아니라 잠깐 들렀다가는 일반 손님들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창업 후 1년 만에 IMF라는 큰 파도가 찾아왔다. 부부는 6개 월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숨을 쉬다가 눈을 떠보면 한 사람은 이미 일어나 앉아 있는 형국이었죠.”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옛 이야기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두 내외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며 일에 매달렸다. “NOROO에서 만든 제품 카탈로그는 물론 기술 자료집을 독파했습니다. 언제나 현장을 직접 방문했고, 도장에 대한 것이라면

줄줄 외웠지요.” 그 결과 경인지역에서도 손꼽히는 매출 액을 자랑하는 현재의 위치에 올랐다. (주)노루페인트 정병훈 인천지점장이 살펴본 결과 1996년 개업 이후 15년간 실적이 떨어진 적이 한번도 없이 꾸준히 두 자리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 대한페인트상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을 더해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판매도 계획 중인데, 너무 바빠서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가끔 밤 먹을 시간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가게도 더 넓혀야 하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하고,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아들 황석찬 부장은 말한다. “두 분은 휴일이 없으세요. 그러니 손님들이 ‘저 집은 문을 안 닫는 집’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실 정도죠.” 아침 6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오늘도 부천 대한페인트상사는 1년 365일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찾는 이를 맞이한다. 물론, 내일도 예외는 없을 것이다.



조색의 명인

“대한페인트상사는 팬톤, 순&수 등 신제품을 언제나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험해 보십니다. 12년 전에 자동조색시스템을 전국에서 세 번째로 설치하셨고, 재작년 재구매하셨어요. 재구매로는 전국에서 첫 번째 사례였죠.” 정병훈 지점장의 설명이다. 황국길 사장은 팬톤, 순&수 등의 신제품이 나오면 박람회장에 도장공들과 함께 참가하는 것은 물론, 일일이 자택에 칠해본다고 한다. “순&수도 집에 칠해 봤어요. 정말 냄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장공 분들도 아주 좋아하십니다.” 때로는 가격 때문에 고객이 NOROO 제품 구입을 망설이면 뚜껑을 열고 직접 칠해서 제품의 질을 확인시켜 준다고도 덧붙였다. “친절하게, 진심으로 대하자’가 저희 모토입니다. 노루의 품질은 고객을 진심으로, 정직하게 대할 수 있게 해 주거든요.”

황국길 사장의 조색 솜씨는 널리 소문이 나서 10년 동안 쓴 자동조색기를 바꿔야 할 정도로 많은 조색을 해왔다. “기본 데이터를 이용해서 조색하는 것뿐만 아니

라 직접 조금씩 비율을 바꿔가며 색을 맞춰내십니다. 컬러북에 없는 색, 예를 들어 벽체를 뜯어와서 맞춰달라 하는 경우에도 100% 색을 구현해 내시죠.” 정병훈 지점장은 관할지역에서 어려운 조색은 이 곳으로 맡긴다며 황국길 사장의 기술을 극찬했다. 이에 대해 황국길 사장은 NOROO의 뛰어난 제품력과 영업력 이야기로 화답했다. “NOROO가 언제나 경쟁사보다 앞서 소비자가 원하는 신제품을 출시해 주니까 저희 사업에도 경쟁력이 생깁니다. 저희가 휴일 없이 일하느라 영업 담당자인 진무섭 주임에게 밤 늦게나 주말에 연락하기도하는데, 그때마다 바로 응대해 주시고, 본사에 가서 물건도 가져와주시고요.”

대한페인트상사가 생각하는 성공 포인트는 ‘공생’이다. ‘내 돈만 벌자’가 아니라 ‘함께 벌자’라는 공생의 가치관에 든든한 실력까지 갖춘 대한페인트상사는 제2의 인생을 환하게 밝히고 이제는 차세대로 그 성공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법 없이 살 사람을 위한 법률 안내

흔히 착한 사람을 두고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한다.
아마도 법이 '단죄'의 도구로 이용됨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법은 단죄뿐만 아니라 보호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그러므로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 속의 착한 사람에겐 법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위기의 순간, '법대로!'라는 말과 함께 마지막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어떻게 해야 숙지할 수 있을까?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법률

간혹 드라마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두꺼운 법전을 뒤적이는 모습을 보곤 한다. 그러나 고시생이 아니라면 간단하게 원하는 법률 조항만을 인터넷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간혹 태극기를 두고 '오염되면 세탁을 해도 되는가? 그냥 버려도 되는가?'란 애매하고 사소한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법률 조항을 검색해 해결할 수 있다.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이 그것이다. '법률지식 검색, 폐지법률검색, 최근 제정·개정 법률' 등으로 간단히 구성된 사이트지만 품고 있는 내용은 방대하다. 상단의 검색란에 '국기란 검색어를 넣으면 이와 관련된 법률 조항들이 죽 나온다. 가장 상단에 위치한 최신 개정법 '대한민국 국기법'을 열어보면 2011년 5월 30일에 일부 개정된 [대한민국 국기법]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이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탁하거나 다림질할 수 있으며, 혹시라도 국가가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이처럼 소소한 것에서 중대한 사항까지, 모든 법을 찾아보기 쉽게 마련해 둔 이 사이트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 폐지된 법률과 개정된 법률을 비교해 보면 세월과 환경에 따라 변화한 사회상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법 개정에 강력한 의문이 생긴다거나 국민으로서 법 제정과 개정에 의견을 피력할 필요를 느낀다면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나 해당 도청, 시청 사이트의 '입법 예고'를 활용할 수 있다. 법령과 자치법규 등은 제정, 개정, 폐지 시 사전 예고하여 20일 동안 개인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필요할 땐 무료법률상담소

법률 지식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전문가의 지식을 빌려야 한다. 위의 사이트에서 법 조항을 찾아 읽을 수는 있다고 해도, 어려운 전문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뿐더러 소송이나 재판 등 법 적용이 필요해지는 경우, 혼자 대처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개인 변호사를 찾으려면 있지만, 간단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32번을 통한 전화 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상담도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는 유사 사례를 검색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전국의 공단 사무실에서는 일정 시간 동안 면접 상담도 진행하며 일정 수업 이하의 국민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직접 소송대리를 하거나 형사변호를 해 주는 법률구조의 도움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서울시, 경기도 등 각 지자체에서도 전화와 팩스, 온라인, 예약 방문 등을 통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청의 무료법률상담 전화는 031-8008-2234(콜센터 031-120)이다.

아는 것이 힘! 법 교육

어른들은 법이 필요한 순간이 따로 있지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법의 존재 자체를 인식시켜줄 교육이 먼저다. 어린이의 경우, 여럿이 함께 사는 사회에는 꼭 따라야 할 '법'이 있음을 알려주고, 청소년들에겐 그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숙지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작년 말 '법사랑 사이버랜드(www.cyberland.lawnorder.go.kr)'를 오픈하였다. 이는 법과 기초질서를 사이버 공간에서 미리 쉽게 배울 수 있는 사이트다. 국회,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경찰청, 법률구조공단 등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하는 곳들에 대한 설명을 영상으로 재미있게 소개하고 유아존, 어린이존, 청소년존으로 나누어 각각 수준에 맞는 법 질서 게임을 준비하였다. 스마트 생활법률에서는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법적 대처법 등을 간단히 알려준다.

또한 법무부가 대전에 마련하여 운영하는 솔로 몬로파크(www.lawedupark.go.kr)는 모의국회, 과학수사, 모의재판, 체험교도소 등 법 체험 프로그램과 법 탐험 캠프 등을 통해 법 의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도와준다.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위한 법정마을 코스와, 초중고생 및 일반인을 위한 법치세상 코스가 따로 준비되어 있다. 체험관은 무료이지만 예약은 필수다.



2012년, 주택 양도소득세 무엇이 달라졌나?

과거 정부는 주택 투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하여 세제상 불이익을 주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주택 거래가 위축되자 2009년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세법개정을 하여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완화하였다.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현재까지 크게 달라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요내용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글 _ 포도재무설계 김민건 팀장(kimte36@podofp.com)

01 1세대 1주택 '2년 이상 거주' 요건 폐지 (2011.06. 03 이후)

예전에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서울, 과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이외에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1년 6월 3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으로 거주 조건이 폐지됨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여도 1세대 1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이 된다(보유한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02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주택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신설된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제도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50%, 1세대 3주택자의 경우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중과된다는 불이익도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50%, 6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누진세율(6%~35%)을 적용하고 있다.



03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양도소득이 일시에 실현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될 경우 장, 단기보유에 따른 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한 제도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자산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은 없다. 하지만 2012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되어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보유기간	공제율	
	토지 건물	1세대 1주택
3년 이상 ~ 4년 미만	10%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2%	32%
5년 이상 ~ 6년 미만	15%	40%
6년 이상 ~ 7년 미만	18%	48%
7년 이상 ~ 8년 미만	21%	56%
8년 이상 ~ 9년 미만	24%	64%
9년 이상 ~ 10년 미만	27%	72%
10년 이상	30%	80%

04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2011년 8월 18일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14일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되었다.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개인은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법인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개인, 법인 모두) 혜택을 주고 있었다.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내 3호이상의 임대주택을 매입하여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1호의 임대주택도 해당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사업자는 세무서와 거주지 소재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도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5년 이상 임대사업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면했던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부동산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취득과 양도 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예측이 어려운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의지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 특히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개정된 소득세법을 활용한다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2012 노루페인트 신제품 박람회 진보한 기술로 생활을 행복하게

다채로운 컬러를 지닌 페인트처럼 다양한 지역에서 온 많은 내빈들이 대전컨벤션센터를 가득 채웠다. 전국 방방곳 곳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방문한 내빈들은 2012 노루페인트 신제품 박람회를 통해 NOROO가 준비한 신제품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한편 각종 영상을 통해 NOROO의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과 함께하는 진보를 약속한 이번 노루페인트 신제품 박람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다.



2012年NOROO涂料新品博览会 采用先进技术，追求幸福生活

如五彩缤纷的涂料一样，2012年2月15~17日，来自世界各地形形色色的贵宾汇聚在大田会展中心，参加2012年NOROO涂料新品博览会。与会来宾通过观看NOROO公司的各种影像资料了解了公司的发展历史，并亲自参观体验了NOROO的新产品。现在就跟随记者的脚步走访一下盛况空前的NOROO涂料新品博览会吧。

진보는 근본에서부터

(주)노루페인트의 신제품 박람회는 매해 새로운 모습으로 열려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행사다. 특별히 올해는 예년보다 3배나 확대된 공간에서 세미나와 신제품 홍보를 동시에 선보임으로써 관련 콘텐츠들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미려한 자동차 외관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자동차 보수용 도료와 공업용 도료, 에너지를 절감하고 완벽한 방수 능력을 자랑하는 바닥 / 방수 / 에너지 도료, 생활 속 컬러 감각을 일깨우는 컬러메이트 셔원 윌리암스 (Sherwin-Williams)의 부스 등은 관람객들로 연일 붐볐다. 손잡이닷컴과 팬톤 프리미엄 페인트가 함께 마련한 DIY 체험관은 일찌감치 체험 예약이 마감되어 높은 관심도를 느끼게 했다. 순&수에 이어 새로이 출시된 큐피트를 선보이는 부스에도 역시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전시관 중 하나는 전시장 중앙에 위치한 NOROO Way 홍보관이었다. ‘진보의 시작은 근본에서부터’라는 생각에서, NOROO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디딤대로 삼은 NOROO Way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한영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객 중심의 사업 전개,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 등 더욱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가치가 NOROO Way”라고 소개하며 이번 박람회는 NOROO Way를 통한 첫 번째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进步从根本开始

一年一度的NOROO涂料股份有限公司（以下简称NOROO涂料）的新品博览会总是以全新的形象示人，每次都赢得好评如潮。今年会展的面积比去年扩大了3倍多，还通过举办现场研讨会和新品宣传，把有关内容进行了灵活的结合。

能够创造美丽外观的汽车修补漆和工业涂料、拥有完美节能防水功效的地坪漆/防水/节能涂料、倡导生活色彩的艺术家伟宣·威廉斯(Sherwin-Williams)的展台等吸引了大量参观者驻足观看。与牵手网和PANTONE(潘通)Premium Paint共同开设的DIY体验馆人气颇高，申请体验报名刚开始没多久就已人满为患。继“纯&秀”之后上市的新产品Q-fit的展馆内也是人头攒动。最吸引参观者的展馆之一要数位于展会中央的NOROO Way宣传馆，NOROO以“进步从根本开始”为出发点，为不断接受新的挑战，制定了NOROO Way，宣传馆对NOROO Way做了详细的介绍。韩荣宰会长在致辞中介绍了以客户为中心发展战略和以发展成全球化企业为目标的具有未来价值的NOROO Way，并表示本次博览会将成为向世人展示NOROO Way的首次挑战。



2012
NOROO EXPO



감성을 향한 기술, 큐피트(Q-fit)

2012년, (주)노루페인트가 신제품 박람회를 통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가치로 내세운 것은 'Human' 즉 인간의 삶과 문화, 행복이다. 67년간 다듬어 온 첨단 기술력의 화살 끝을 인간 본연의 가치와 감성에 향하고 새로운 진보를 추구하겠다는 각오이다. 이 각오는 사람의 체온인 36.5°C를 접목한 'Advance 36.5°C'라는 문구로 완성되었으며, '사람을 향한 기술'이라는 가치를 담은 고부가가치 신제품 중 하나로 '큐피트(Q-fit)'가 전격 발표되었다. 지난해 3월에 출시된 순&수가 '순환경' 기능을 통해 고객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했고, 9월에 발표했던 팬톤 프리미엄 페인트가 완벽한 컬러로 고객의 감성을 충족시켰다면, 이번 큐피트는 고객이 생활 속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기술력으로 완벽히 만족시키고자 하는 제품이다. 그 첫 번째 신제품인 큐피트 차열 도료는 100% Pure-Acrylic 수지에 의한 10년 품질 보증의 저오염과 고내후성을 자랑하며, 뛰어난 차열효과로 냉방비를 절감시켜 준다. 큐피트 방수 도료 또한 탄성 도막으로 실크랙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일반도료에 비해 태양광을 차단하는 효과가 뛰어나 차열의 기능도 수행한다. 이외에도 기존의 순&수에 방균 기능을 더해 유해한 미생물로부터 인체와 생물을 보호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주는 순&수 방균도료, 팬톤 프리미엄 우레탄 / 우레탄 메탈릭 / 컬러 믹스 등 소비자의 세세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신제품이 선보여졌다.

面向感性的技术——Q-fit

2012年，NOROO涂料通过新品博览会树立了以人为本的价值观，即注重人们的生活、文化和幸福。成立六十七年间，NOROO领悟到要追求新的进步，尖端技术的矛头最终要指向人类最原始的价值和感性，这其中就包含了“技术以人为本”的高附加价值新产品Q-fit。去年3月正式上市的“纯&秀”通过其特有的“环保”功能，全面满足了顾客对健康和环境的要求；9月发布的PANTONE(潘通)Premium Paint则凭借完美的色彩表现力，满足了顾客的感性需求。而Q-fit可以说是一款运用高端技术全面满足顾客日常生活所有需求的产品。首先Q-fit隔热涂料采用100%纯丙烯酸树脂，10年品质保证，具有污染低、耐候性等特点，卓越的隔热效果，大大节省了空调费用。Q-fit防水涂料和弹性涂膜，不仅可以防止产生裂缝，与一般涂料相比，阻挡太阳光的效果也非常显著，可以充分发挥隔热功能。除此之外，NOROO还开发出了“纯&秀抗菌涂料”，它在“纯&秀”基础上增加了抗菌功能，能有效防止有害微生物对人体和生物的侵害，使周围环境更加舒适。本次博览会同时还展出了PANTONE(潘通)Premium聚氨酯、聚氨酯金属和混合色等能满足消费者全方位需求的多功能新产品。



지식의 나눔, 발전의 도모

“팬톤의 어원을 아십니까? 광범위함을 의미하는 'Pan'에 색조를 뜻하는 'Tone'이 결합하여 광범위한 색을 취급하는 '팬톤'이 탄생했습니다. 팬톤 컬러는 전 세계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하루 백 만명 이상의 디자이너들이 팬톤의 기술력을 사용하지요.” 홍콩에서 온 팬톤 아시아 대표는 '2012 Pantone Color Trend'란 주제로 기업 팬톤의 시작과 컬러가 가진 표현의 기능, 기업 컬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팬톤 매칭 시스템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뒤이어 이어진 '노래하는 한의사' 김오곤 박사의 건강 특강, '사업 성공을 위한 건강 관리법'은 경쾌한 음악으로 참가자들에게 흥을 불어넣는 한편,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필수 건강 정보를 전달하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계속 새로운 제품들이 나와 주니 판매의 폭을 넓힐 수 있어 좋지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실히 배우고 가는 기회가 됩니다.” 이번 박람회에 대한 소감을 부탁하자 수원 부창 특약점의 이정민 이사는 평소 팬톤 프리미엄 페인트의 색감에 감동을 받았다는 위와 같이 밝혔다. 멀리 말레이시아에서 온 시넥스 코팅(Shinex Coatings)의 레이 웅(Ray Ng) 씨 역시 “여러 관계자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호평하였다. 다른 내빈들 역시 한 눈에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고 공부할 수 있어 좋았다고 평하며 다음 박람회를 기대하였다. 사흘간의 노루박람회는 이렇듯 호평 속에 막을 내렸다. 하지만 NOROO가 지향하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기술'은 NOROO Way의 길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分享知识，谋求发展

“您知道PANTONE的语源吗？它是寓意着范围广的‘pan’与表示色调的‘Tone’相结合而诞生的词汇，‘PANTONE’就是多彩的意思。潘通拥有全世界90%的色彩设计师，每天有超过100万的设计师使用潘通的技术。”来自香港的潘通亚洲代表以“2012 Pantone Color Trend”为主题，介绍了潘通企业的起源、色彩表现力以及精准的色彩匹配系统等。另外，韩医学博士金伍坤医生还为大家特别准备了主题为“事业成功的健康管理法”的健康讲座，伴随着轻快的音乐，金博士不仅调动了参观者的积极性，也向他们传达了生活中保持健康的秘诀，赢得了众人热烈的掌声。

水源頤影特约店的李征旻理事发表感言说“NOROO一直有新的产品问世，所以销售面越来越广。此次博览会不仅学到了很多东西，还是一个发展的机会。”他还表示PANTONE(潘通)Premium Paint的色彩让他很感动。从马来西亚远道而来的Shinex Coatings的Ray Ng也对本次博览会做出了高度评价，他表示：“这是一个非常好的机会，可以见到很多业内人士。”其他来宾也纷纷表示可以一次性了解并学习很多新的信息，非常好，并表现出了对下一届博览会的期待。为期三天的NOROO新品博览会已在如潮的好评声中落下帷幕，但NOROO公司向往的“以人为本的温暖技术”将随着NOROO Way一直永久延续下去……



(주)노루홀딩스,
2012년 NOROO 그룹 팀장 교육
'갈등관리 리더십' 실시



(주)노루홀딩스,
NOROO 그룹 안양시청 설명회



(주)노루페인트,
지역사업부 최우수영업팀 외 포상

(주)노루홀딩스

NOROO涂料股份有限公司

+2012년 NOROO 그룹 팀장 교육 '갈등관리 리더십' 실시

(주)노루홀딩스는 NOROO 그룹의 모든 팀장들을 대상으로 매니지먼트 및 리더십 역량을 제고하는 팀 매니지먼트 스쿨의 '갈등관리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 1차는 3월 20일부터 21까지 1박 2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업무 일정의 효율을 위해 대상자에 따라 교육 일정을 달리하여 동일 교육 내용을 12월까지 세 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갈등관리 리더십' 교육에 참가한 팀장들은 조직에서의 갈등의 의미와 개인 특성에 기초한 갈등 관리 스킬, 대화 스킬 등을 알아보았으며 갈등 관리를 통해 감성을 관리하고 조직의 변화를 이끌며 설득과 협상에서 우위에 서는 방법 까지도 모색해 보았다. 특히 갈등 관리를 위해서는 서로의 다른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네, 이를 위해 4가지 행동유형의 특성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며 이러한 특성들에 대해 리더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인 사례 연구와 게임, 토론을 통해 체득해 볼 수 있었다.

조직의 갈등 관리는 상호간 신뢰 회복을 통해 협력 관계를 조성하고 조직과 기업의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교육을 통해 NOROO 그룹의 각 리더들은 대내적으로는 변화에 팀원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며 갈등을 해소해 내고 대외적으로는 설득과 협상에 있어 소통의 기술, 성공의 기술을 연마해 갈 수 있을 것이다.

开展2012年NOROO集团组长“矛盾管理领导力”培训

为提高管理和领导能力, NOROO控股股份有限公司以集团的所有组长为对象, 开展了“矛盾管理领导力”培训。本培训计划于年内分三期进行, 培训对象可根据自己的日程安排选择培训时间。3月20日至21第一期培训顺利结束。

参加本次“矛盾管理领导力”培训的组长不仅了解到组织中矛盾的意义和以个人特性为基础的矛盾管理技巧、谈话技巧等, 还能

通过矛盾管理学会控制情绪, 领导组织改革, 以及在谈判或协商中占据优势的方法。矛盾管理首先要了解和容纳彼此的差异, 为此, 组长们共同学习了理解四种行动类型特性的方法, 并通过游戏、讨论和具体的事例研究, 体验了作为领导应该如何对待这些特性。

一个组织的矛盾管理在恢复彼此信任, 建立合作关系, 成功推动组织和企业变化方面极其重要。通过此次培训, NOROO集团的领导对内可以使组员积极地参与到变化中, 减少矛盾; 对外可以训练在谈判或协商中的沟通能力, 积累成功的技巧。

+NOROO 그룹 안양시청 설명회

안양시청의 월례조회 행사 중 하나인 '지역 기업 소개' 시간에 초청받아 지난 2월 1일, 이민형 부사장이 NOROO 그룹의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안양시청의 직원들과 외부인사들이 참석한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이민형 부사장은 NOROO 그룹 창업에서부터 안양공장으로의 확장 이전 및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성장 과정과 창업자의 창업정신, 경영철학, 노사관계, 향후 방향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으며 함께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뜨거운 호응 속에 설명회가 끝난 후 최대호 안양시장은 NOROO의 역사와 성공에 대한 감회를 조회사 시간을 통해 밝히기도 하였다.

NOROO 集团安养市政府说明会

在2月1日举办的安养市政府月度例行晨会“地方企业介绍”板块中, 李敏亨副社长对NOROO集团的现况作了简要说明, 安养市政府的职员和部分外界人士参加了当天的会议。会上李敏亨副社长向大家介绍了NOROO集团的设立、发展和扩建安养工厂的过程, 以及企业在发展过程中创业者的创业精神、经营哲学、劳资关系和未来的发展方向等, 同时还与大家共同分享了相关的影像资料, 说明会在一片热烈的气氛中结束。说明会后, 安养市崔大镐市长对NOROO的历史和成功发表了感言。

开展2012年NOROO集团组长“矛盾管理领导力”培训

为提高管理和领导能力, NOROO控股股份有限公司以集团的所有组长为对象, 开展了“矛盾管理领导力”培训。本培训计划于年内分三期进行, 培训对象可根据自己的日程安排选择培训时间。3月20日至21第一期培训顺利结束。

参加本次“矛盾管理领导力”培训的组长不仅了解到组织中矛盾的意义和以个人特性为基础的矛盾管理技巧、谈话技巧等, 还能

(주)노루페인트

NOROO涂料股份有限公司

+2012년 무재해 기원제 및 시산제 실시

지난 3월 10일, 포근한 날씨 속에 안양 수리산에서 무재해 기원제 및 시산제가 실시되었다. 이날 행사는 (주)노루페인트 임직원 외 (주)노루홀딩스 및 계열사도 참여하였으며, 수리산 환경 정화활동 및 아성동을 먹이주기 행사가 함께 진행되었다. 참석한 NOROO 임직원들은 안전을 기원하는 결의문 낭독과 NOROO WAY 선서로 올 한해 무재해를 다짐하였으며 2012년 NOROO 지표인 '준비된 도전, 하나님은 NOROO人'을 통해 NOROO를 글로벌 기업으로 리드하자는 각오를 다졌다.

开展2012年无灾祈愿活动和始山祭

3月10日, 春风和煦, 无灾祈愿祭和始山祭(登山人每年年初举办的祭祀山神的活动)活动在安养修理山进行。当天, 参加活动的不仅有NOROO涂料股份有限公司的高管和职员, NOROO控股股份有限公司以及下属公司的领导和员工也共同参与了修理山环境净化活动和给野生动物喂食活动。参加活动的NOROO高管和职员们共同朗读了祈福安全的决心书并宣读了NOROO WAY, 共同祈祷今年无灾无害, 平平安安。同时还决心紧紧围绕2012年NOROO的指标——“迎接挑战, 做团结一心的NOROO人”, 把NOROO发展成为全球化企业企业

+지역사업부 최우수영업팀 외 포상

(주)노루페인트는 3월 12일 월요일 본관동 3층 대회의실에서 비정기 포상식을 간단히 시행하였다. 이번 포상은 노루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노루박람회 추진팀과 2011년도 지역사업부에서 우수한 영업력을 보여준 팀 및 정년퇴임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노루박람회 추진팀 포상은 마케팅 전략팀의 김봉제 부장이, 2011년도 지역사업부 최우수영업팀 포상은 대전지점의 조성수 부장이 받

았으며 정년퇴임 재직기념패는 수자생산1팀의 황일성 과장이 수상하였다. 수여를 진행한 (주)노루페인트 김수경 사장은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을 전하였다.

地区事业部表彰最优秀营业组

为表彰NOROO博览会的促进小组、2011年地区事业部展现卓越营销能力的小组以及颁发退休在职纪念奖牌, NOROO涂料股份有限公司于3月12日在公司主楼3层大会议室举办了非定期表彰仪式。负责颁奖的NOROO涂料股份有限公司金守经社长向一直以来默默为公司无私奉献的获奖员工表达了诚挚的谢意。

+우수사원 교육생, 대학총장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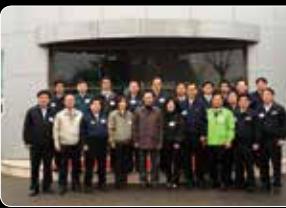
(주)노루페인트는 회사의 협조 아래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우수사원을 선발하여 대학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하여 2012년에 마산대학을 졸업한 칠서공장 도료생산팀의 하유신 대리가 대학총장상을 수상하였다. 대학 측은 하유신 대리가 마산대학 유통경영학과에서 수학하는 동안 전과목(82학점)에서 ALL A+학점(평점 4.5점)을 받았고 교내생활에서도 타 모범이 되어 본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하유신 대리는 평소 생산계획을 담당하며 영업 부문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납기관리를 매우 우수하게 수행하였고 여러 가지 행정 업무에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학업 역시 충실히 하여 본상을 수상하였기에 회사와 노동조합이 의도하는 우수인력 양성의 모범사례가 되었다.

优秀员工培训生荣获大学校长奖

目前, NOROO涂料股份有限公司以员工福利为出发点, 选拔优秀员工, 由公司帮助对其进行大学课程培训。通过此活动, 于2012年毕业于马山大学的漆西工厂涂料生产组的河维新代理被授予大学校长奖。马山大学方面表示, 河维新代理在学校学习期间, 全部科目(82学分)都获得了A+(平均4.5分), 生活方面也为他人树立了榜样, 因此授予他该奖项。河维新代理在公司负责生产计划, 通过与



(주)노루페인트
우수사원 교육생, 대학총장상 수상



(주)노루페인트,
이명박 대통령과의 수출기업인 간담회



(주)아이피케이,
'초록우산 1004 가정 주거환경 개선' 활동 협약식



营业部门保持密切的沟通，不仅确保了交货期，还在各种行政业务中发挥了卓越的能力，学习方面更是刻苦努力，可以算得上是公司和工会希望培养优秀人才的典范。

★(주)노루코일코팅 포항공장 본관동 준공

李明博总统在蔚山市彦山郡彦山工业园区出席了由(株)NOROO卷钢涂料有限公司举办的出口企业家座谈会。李明博总统表示：“政府希望通过推进对京畿道中小企业政策进行系统地评估，不断提出推进可持续发展的方案。目前该方案研究工作正在积极进行中。今后还将通过开展今天这种形式的座谈会，把掌握到的京畿道内中小企业政策满意度和政策需求结果反映在服务上。”

参加李明博总统出席的出口企业家座谈会

日前，李明博总统出席了在京畿平泽市鱼渊工业园区SEOJINCAM内举办的出口企业家座谈会，李敏亨副社长代表NOROO涂料股份有限公司参加了会议。李明博总统亲自参观了工厂的生产线并与中小企业的代表就确保人力资源、共同发展、自由贸易协定对策等内容进行了交流。李明博总统表示：“政府希望通过推进对京畿道中小企业政策进行系统地评估，不断提出推进可持续发展的方案。目前该方案研究工作正在积极进行中。今后还将通过开展今天这种形式的座谈会，把掌握到的京畿道内中小企业政策满意度和政策需求结果反映在服务上。”

■ (주)노루코일코팅

NOROO卷钢涂料有限公司

★(주)노루코일코팅 포항공장 본관동 준공

(株)NOROO卷钢涂料有限公司于2月10日，在蔚山市彦山郡彦山工业园区举办了出口企业家座谈会。李明博总统出席了座谈会。李明博总统表示：“政府希望通过推进对京畿道中小企业政策进行系统地评估，不断提出推进可持续发展的方案。目前该方案研究工作正在积极进行中。今后还将通过开展今天这种形式的座谈会，把掌握到的京畿道内中小企业政策满意度和政策需求结果反映在服务上。”

NOROO卷钢涂料有限公司浦项工厂主楼竣工

2月10日，NOROO卷钢涂料有限公司在蔚山市彦山郡彦山工业园区举办了出口企业家座谈会。李明博总统出席了座谈会。李明博总统表示：“政府希望通过推进对京畿道中小企业政策进行系统地评估，不断提出推进可持续发展的方案。目前该方案研究工作正在积极进行中。今后还将通过开展今天这种形式的座谈会，把掌握到的京畿道内中小企业政策满意度和政策需求结果反映在服务上。”

■ (주)아이피케이

(株) IPK

★'초록우산 1004 가정 주거환경 개선' 활동 협약식 가져

3月2日，IPK釜山总公司在釜山市举办了“绿色雨伞1004改善家庭住宅环境”活动签约仪式。参加此次签约仪式的有釜山社会福利协议会、釜山社会贡献信息中心、儿童福利机构——绿色雨伞釜山总部以及参与专为低收入家庭免费更换地板革和墙纸的“爱心人士”。

“绿色雨伞1004改善家庭住宅环境”活动通过走访居住在釜山的1004名弱势儿童家庭，帮他们贴墙纸、铺地板革、修理洗手间等，改善其恶劣的居住环境。IPK总公司的管理者和员工从3月起，每月的第三个周六都会积极地参与改善住宅环境的志愿者活动。一直以来，IPK非常注重社会公益经营，公司上下积极参与各种公益活动，现在遍布全国13个地区的办事处都积极参与地区志愿者活动。例如，守护文化遗产、为行动不便的老人送去亲手制作的便当、为装饰农村房屋而组织的“漆门”活动、与釜山盲校联手举办的一对一帮助活动等，还有为空巢老人和低收入人群提供免费食物、为低收入家庭的儿童洗澡、辅导学习，为精神、肢体残疾人提供服务等各种具有地区特色的志愿者活动开展的如火如荼。

凭借这些志愿者活动以及此次举办的“绿色雨伞1004改善家庭住宅环境”签约仪式，IPK将为弘扬地区社会和生活文化起到积极推动作用。

“绿色雨伞1004改善家庭住宅环境”活动通过走访居住在釜山的1004名弱势儿童家庭，帮他们贴墙纸、铺地板革、修理洗手间等，改善其恶劣的居住环境。IPK总公司的管理者和员工从3月起，每月的第三个周六都会积极地参与改善住宅环境的志愿者活动。一直以来，IPK非常注重社会公益经营，公司上下积极参与各种公益活动，现在遍布全国13个地区的办事处都积极参与地区志愿者活动。例如，守护文化遗产、为行动不便的老人送去亲手制作的便当、为装饰农村房屋而组织的“漆门”活动、与釜山盲校联手举办的一对一帮助活动等，还有为空巢老人和低收入人群提供免费食物、为低收入家庭的儿童洗澡、辅导学习，为精神、肢体残疾人提供服务等各种具有地区特色的志愿者活动开展的如火如荼。



New iPad, New Tablet PC

3월 8일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애플의 팀 뮤이 'New iPad'를 발표했다. 역시나 애플이었다. 'iPad3'일 거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새 아이패드의 이름은 '새 아이패드(New iPad)'였으니.



Image

New iPad에서 먼저 눈에 띠는 것은 4배나 향상된 고해상도 '레티나 디스플레이'이다. 또한 Quad core GPU (4개의 CPU를 사용하는 그래픽 처리장치) 칩은 이 고해상도의 화면을 더욱 부드럽고 빠르게 처리하여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 준다. 후면 카메라는 5M Pixel 카메라를 제공하여 기존 iPad2의 0.7M Pixel보다 많은 향상을 가져왔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iPhone 4S의 8M Pixel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사진 편집 어플리케이션 'iPhoto'와 동영상 촬영/편집 어플리케이션 'iMovie'는 이를 충분히 보완해 준다.

Speed

New iPad부터는 4G LTE를 지원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4G LTE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4G LTE는 3G 무선 통신 기술과 달리 전 세계 표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국가마다 다르다. 당연히 New iPad는 미국이 기준의 700MHz와 2,1GHz주파수 대역에 맞춰서 개발했기 때문에 800MHz(LG U+, SKT), 1.8GHz(KT)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New iPad를 LTE로 사용할 수가 없다. 미국과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국가가 많은 가운데, 지금까지는 전 세계 동일한 제품으로만 제공한 애플이 LTE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들고 나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Voice & Visual

기대했던 'Siri(iPhone 4S의 개인비서)'는 아니지만, 'Voice Dictation(음성받아쓰기)' 기능을 제공한다. 'Siri'의 경우처럼 아직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어가 지원된다면 무척 편리할 가능성이 될 터이다. New iPad는 iPad2에 비해서 두께가 미세하게(0.6mm) 더해졌고, 무게는 약 30~40g 정도 무거워졌지만, 이것이 약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의 iPad2가 좀 무겁다고 느낀 사람에게는 아쉬움이 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Battery & Price

살 때는 잘 따져보지 않지만, 사용할 때 그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중 하나는 배터리 사용 시간이다. 특히나 다른 태블릿 PC 또는 스마트폰처럼 배터리를 교환할 수 없는 애플의 제품에게 배터리 사용 시간은 중요하다. New iPad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1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기존 iPad2의 가격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은 놀랄 뿐이다. 기존의 iPad2는 New iPad가 나옴에 따라 가격을 \$100 인하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에서의 출시 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

* The Others

현재까지 나온 제품들 중에 New iPad(9.7인치)의 경쟁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삼성의 갤럭시 탭10.1(10.1인치), LG 옵티머스 패드(8.9인치) LTE, 아마존의 킨들 파이어(7인치) 등이 있다. 조만간 삼성에서도 New iPad의 하드웨어와 버금가거나 좀더 우월한 갤럭시탭 11.6을 출시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듯 점점 멋진 제품들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으니 소비자로서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구입을 고려하는 이는 제품들을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주 사용목적을 정하여 그에 적합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Behind Cut

촬영과 인터뷰 때 보여주신
미소와 노력을 모두 싣지 못해
참 아쉽습니다.
사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ET 인증서를 든고 활하게 웃고 계시는
노루네커리마켓 기술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짹짜짝~!!



타이어 ERP TFT의 업무 중 모습입니다
촬영터미널 화면에서도
눈길이나 흘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시스템 오픈이 더욱더 기대됩니다!



타이어 대안제품의 상세페이지
가족의 힘과 열정과 취미를 서로 늘려갑니다.
제작공정을 살펴보니 기획·설계·제작·판매·포장
등으로 아름다워집니다.



타이어 트립에 참여하신 약 700명 추억 보내는
포토그래퍼의 추억 브이로그
재미있는 포즈를 많이 연출해 주셨습니다.
'촬영'이 아닌 그야말로 '여행'이었다지요.



스테나가 빠른 속도로 학습하는
아트 앤 테라피 과정입니다.
도화지에 차운의 마음을 담아내는 화장을
하는 '두근두근'화답입니다.